

커버스토리

## 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말하는가

우리는 '어떤'협동조합을 말할 것인가?  
협동조합, 변화의 바람을 논하다  
세계 협동조합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보다

사회적기업+

이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

# 함께 일하는 사회

2012 No.18



커버스토리

# 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말하는가

함께 일하는 사회 2012 No.18



- 08 우리는 '어떤' 협동조합을 말할 것인가?
- 10 협동조합, 변화의 바람을 논하다
- 16 세계 협동조합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보다

- 03 **어느 글** 장애인에의 헌법 위반
- 04 **포토에세이** 상추꽃
- 20 **WT가 만난 사람**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대표
- 24 **기부美** 조슈아 나무의 특별한 미술여행
- 28 **파트너 ON**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32 **희망기록**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사업
- 36 **청년공감** 청년연대은행(준)
- 40 **JOB 생각**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 62 **착한소비 365** 지구를 살리는 에코웨딩  
우리집 생활꾸러미
- 64 **착한소비 매니아** 썸크래프트의 수제 천연비누
- 66 **CEO가 쓴다** 이경숙 이로운닷넷 대표, 머니투데이 정치경제부 차장의 추천도서
- 67 **WT 소식** 2011.9 ~ 2012.4
- 70 **WT 풍경**

사회적기업+

- 42 **이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
- 46 **W 통신**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2탄: 필리핀 캠프봉제센터
- 50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한다
- 54 **소셜벤처** 청년 사회적기업가 3인과 나눈 5문 5답
- 58 **좋은 이웃** 서비스 그랜드 사가 이쿠마 대표
- 60 **달인을 만나다** (주)인스케어코어 김말녀 ECO



『함께 일하는 사회』는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대안적 담론을 담아내는 work media를 지향합니다.

통권 제18호 등록번호 제 313-2005-6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1975-5716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발행인 송일주 편집인 이세중 편집위원 조재국, 최진선, 정태길 기획편집 함께일하는재단 홍보팀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121-819)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02-338-0019, www.hamkke.org 제호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 편집디자인 (주)디자인하늘소 02-336-1814

# 장애인의 헌법 위반

글 김정열 (사회적기업 리더리크 대표, 재단 운영위원)

최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우리 가족은 모두 2G폰을 사용하고 있다). 가족 여행 등에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오빠는 재수하는 자기의 처지를 감안해 휴대폰 사용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의중을 파악한 발언이다. 아빠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고 있던 아들의 발언에 힘입어 나는 여유 있는 태도로 딸에게 “꼭 바꾸고 싶다면 그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정요금의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살짝 끼워 넣었다. 딸은 한 달에 한번 외출을 하는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돈을 올려 주지 않는 한 추가 요금을 낼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했다. 딸의 요구를 전면 묵살하지 않았다. 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줄 아는, 자녀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빠로서 인식시켰다(나는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딸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딸 바보 아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딸에게 느긋한 표정을 날렸다. 나의 표정 관리에 대한 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차라리 “아직은 스마트폰 안 돼.”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라고 했다. 가능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은 비겁하다는 것이다. 나는 딸의 반격에 할 말을 잃었다(결국 딸은 우리 가족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실업률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은 몇 배나 높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50%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근로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헌법 32조(근로의 의무)와 헌법 28조(납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다. 근로자의 70%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적장애인 38명, 지체장애인 등 15명). 우리나라는 680개(2012년 8월 현재)의 인증사회적기업과 약 13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의 '근로의 의무'를 통한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낙관인가. **wf**



## 상추꽃

상추꽃이 피었습니다.  
고추꽃이 피었습니다.  
열무꽃도 피었습니다.

조각난 시멘트를 돌돌 말아 울타리를 짜고  
먹음직스런 꽃들이  
엄마 손으로 할아버지 손으로  
용기종기 피었습니다.

멀리 비껴나 바라보던 개나리꽃이  
엄마 손길, 할아버지 손길 닿은 그곳이 부러워  
목을 쪽 길게 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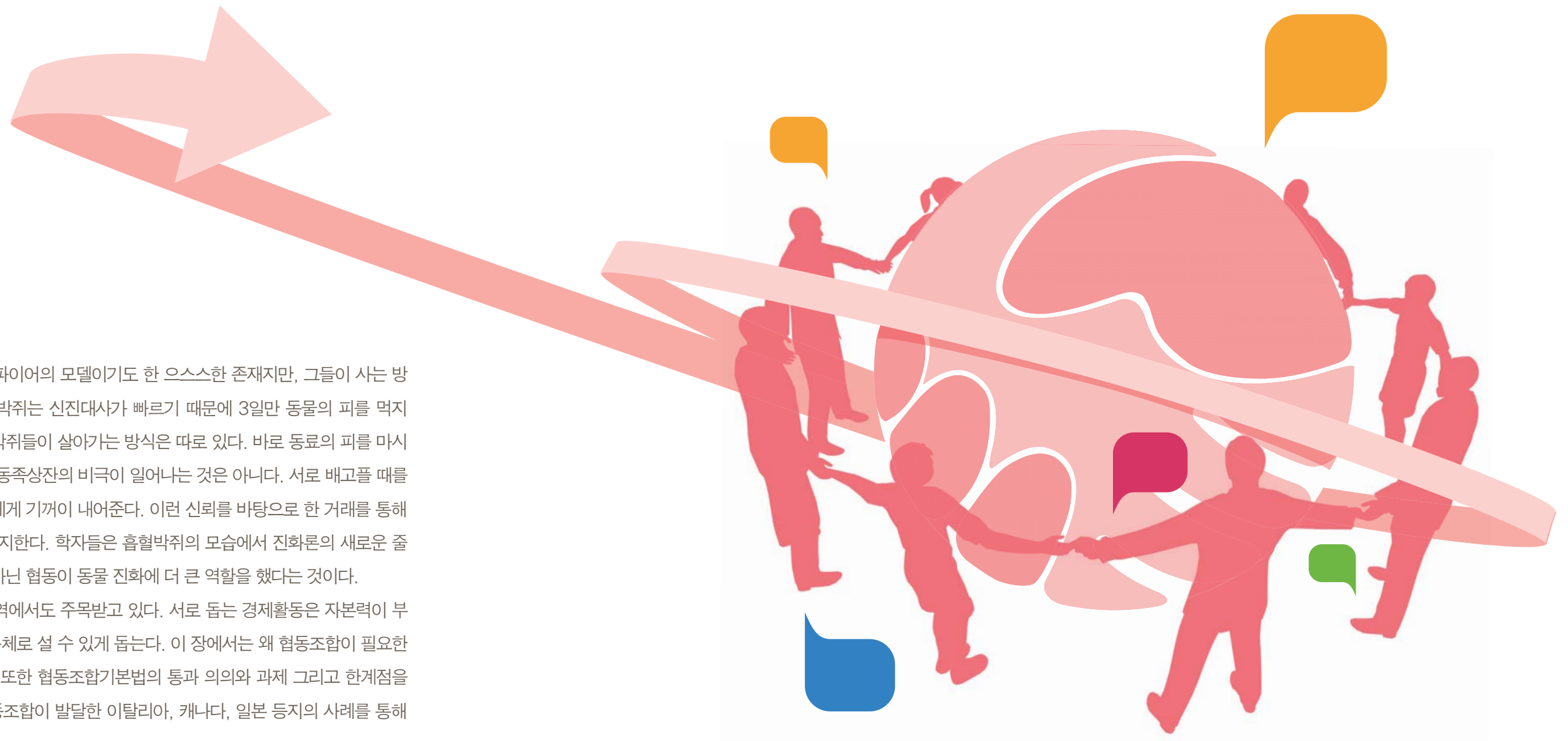
○  
〈포토스토리〉는 사진작가 전석병 님의 재능기부로  
꾸려가는 코너입니다. thephoto@korea.com

#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말하는가

협동조합은 소비자·소상인·  
소생산자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출자자) 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고(운영자),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이용자)  
생활을 지키고 향상하는 조직이다.

흡혈박쥐는 동물의 피를 먹이로 산다. 뱀파이어의 모델이기도 한 으스스한 존재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은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흡혈박쥐는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3일만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면 빈혈(?)로 죽게 된다. 이런 흡혈박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다. 바로 동료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물론 강제로 이빨을 들이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고플 때를 우려해, 자신의 피를 배고픈 가족과 짝지에게 기꺼이 내어준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를 통해 흡혈박쥐는 15년 이상 꽤 오랜 수명을 유지한다. 학자들은 흡혈박쥐의 모습에서 진화론의 새로운 줄기를 발견하고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이 아닌 협동이 동물 진화에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협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최근 경제 영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서로 돕는 경제활동은 자본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있게 돕는다. 이 장에서는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통과 의의와 과제 그리고 한계점을 좌담을 통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wt



# 우리는 '어떤' 협동조합을 말할 것인가?

글 김기섭 (에이피넷 대표, 상지대학교 겸임교수)

## 인간의 세 가지 선택지

위대한 철인 이반 일리히(Ivan Illich)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인간은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치적 선택지**가 있다. 이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 즉 생산수단의 소유제, 자원의 분배 방식, 정치적 권위의 소재 등에서 자본주의적 입장이나 사회주의적 입장이나 하는 선택의 문제다.

다음으로 **기술적 선택지**가 있다. 이는 경성(hard)이나 연성(soft)이나, 즉 관료 지향적이고 중앙 집중적이며 에너지 다소비형이나, 아니면 민중 자치적이고 지역 분권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이나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해당한다. 거대한 제조업체와 슈퍼마켓, 종합병원 등은 모두 경성 기술의 대표적 사례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기규정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 한쪽에는 소유를 통해 만족하고 상품을 소비해야 생활할 수 있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산업 생산물의 소비를 포기하거나 산업 활동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플러그를 뽑은(unplugging)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본에 의해 고용된 노동을 하면서 경성 기술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만 살 수 있는 경제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조직하면서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자연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연성 기술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은 궁핍한 이들을 위한 것일까?

일리히가 말하는 정치적 선택지의 문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시장을 통해서가 아닌 노동자 간 협의와 호혜에 통해 자원을 분배하며, 이런 행위를 주관하는 정치적 권위를 노동자 자신이 지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항마로서 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일시적 자구책,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먹고살 만해지면 자연히 소멸할 것으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1:99 사회, 점령하라 월 스트리트 등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전황이 우리네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그 육성에 힘쓰고 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다시금 협동조합일까? 왜 협동조합은 농수축산업, 소비, 금융, 주택의 분야에서 8억 명이 넘는 조합원을 지니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단체(NGO)로 성장했으며, 이런 성장은 생산과 노동, 의료와 보건, 문화와 예술, 교육, 여가, 공공재(전기, 가스, 수도 등)와 교통 등의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을까?

협동조합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정직한 노력'일 따름이다.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꿈,

그 꿈을 이뤄갈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한 정직한 노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그 안에 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담보해낼 주체, 그런 주체가 비전을 구체화할 현실적합적 방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사회가 변하듯, 협동조합도 변한다. 따라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함의되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인간과 인간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은 항상 새로이 해석되고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지향의 타당성, 인간의 주체성, 현실에서의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은, 더 이상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우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 때

2012년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진영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에 따라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왔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의 농협과 수협 등의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의 신한, 소비 생활 영역에서의 생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2011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을 '사업 영역'에 따라 구분 짓는 시대에서 '주체'에 따라 자유롭게 영역을 설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 개별법」의 시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대로의 변화는, '사업 내용'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하던 데서 '사업 주체'가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법 시대의 협동조합은 그 주체가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동질의 계급의식에 기반했다. 일리히가 말하는 정치적 선택지의 문제를 등한시한 채로 자본주의의 주변 문제에 집중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자 농민 계급의 '경제인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경성 조직)와는 이름을 달리하면서도 여전히 경성 조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기본법 시대의 협동조합은 산업사회의 주변인(minority)들, 즉 청년, 여성, 노약자, 영유아, 취약 계층과 같은 사람들을 주체로 한다. 일리히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이고 플러그를 뽑힌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협동조합은 이미 개별법 시대의 협동조합이 아니다. 그들이 마련해가는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의 소유제와 자원의 분배 방식과 정치적 권위의 소재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할 것이고 나아가 산업사회의 경성 기술이 거들떠도 안 보는 틈바구니에서 자신만의 강점인 연성 기술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지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이 '어떤' 협동조합이어야 하는 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협동조합은 새로운 미래로 다시 태어나,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현실적합적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2012년은 그 시작이다. **wf**

**김기섭**님은 1993년 생활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해 전국 생협의 조직 정비와 사업 안정에 힘썼다. 1997년에는 수도권 생협들과 함께 두레생활연합회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상무이사를 지냈다. 지금은 민중교역회사 '에이피넷' 대표이자 상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깨어나라 협동조합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직한 노력' 등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협동조합의 해를 준비하면서 협동경제 진영 안팎이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며, 협동조합의 문화, 영역 확장, 한계 등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음속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냈다. 또한 함께일하는재단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하는지 점검해 본다.

# 협동조합, 변화의 바람을 논하다

정리 이은주 (홍보팀)

● **사회자**  
박성철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 총괄팀장)

● **참가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오세영 (한살림연합 과장)

**사회자**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고,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변화하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우선, 현장은 어떻게 느끼는지 듣고 싶다.

**오세영** 앞으로 지역에 많은 협동조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들과 한살림이 어떻게 연대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이란 한정된 테두리에서 벗어나 영역의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생산자의 대부분인 농민들은 영농조합법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누룽지나 된장 등 소규모 가공을 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은 주식회사나 영농법인 등으로 돼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워커즈클렉티브 관련한 곳도 주식회사 형태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다. 아마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면 지금까지 잘됐을 것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지평을 넓려가며 지역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물품을 한살림에서 소비하거나, 유통에 이익을 주거나 하는 연대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자** 기본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님은 이번 기본법 통과와 배경과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기태** 사실 운이 좋았다. 원래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다. 신탁운동이 1960년대 시작해 1971년도에 법제화됐고, 생협도 1985년 가내수공업에서 시작해 법제화된 게 1995년이니 15년 정도 걸렸다. 하지만 기본법은 실제로 두 달 만에 통과됐다.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우리는 재벌 하나 잘 키워서 수출이 잘되면, 내수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IMF 때 버렸다.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생산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하나 더 들자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의 정책이 들어



오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기업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합의가 내재된 상황에서, 민간연대 협의체의 30개 단체가 모인 것도 큰 명분이 돼서 법이 빠르게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의 전망은 하느님도 모른다. 돈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문화가 중요하다. 어쨌든 새로운 뭔가가 우리 경제에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자**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었음에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같은 좋은 사례가 있었다. 원주에서는 이번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박준영** 내용과 형식을 통일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원주도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는 가공업체가 있는데, 소비·유통을 해야 하는 생협에서 가공을 하다 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이

통과되고 나서 단체의 내용과 형식과 의지까지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됐다. 더 쉽게 고민을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인 친환경급식 맛두레와 친환경식당 행복한달팽이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한다며 올해 총회에서 이야기했다. 내용, 형식, 의지가 통일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미래 그리고 지역 중심의 미래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5년 정도 경험했지만, 내부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자고 해도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서 대표 위주의 경영방식이 계속됐다. 적당한 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아주 다른 방식을 보여줄 것 같다.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원주 한살림을 분가시켰다. 한살림을 만들기 위해 출자금을 1억 정도를 모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어쩔 수 없이 원주의 자금과 인력 등이 투입됐고, 원주가 주식의 50% 넘게 소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형식은 사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살림농산의 대표나 직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원칙에 안 맞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형식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바뀌려면 최대출자금이 30% 이내이고, 1인 1표제가 되니 그런 접근은 불가능해진다. 변화를 위해서는 합의와 설득,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한 지역 중

심성을 떨 수밖에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게 된다.

**김기태** 예전 도드람 축협을 우호적인 사람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다. 물론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사업이 잘되면서 욕심이 생겼다. 몇 명의 조합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한 사람이 가진 주식의 50%가 넘어버렸다. 주주총회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도드람 축협의 모든 사업체계가 깨질 위기에 도달했다. 형식이 없는 곳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과 진배없다.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한폭탄은 제거되고, 내용과 형식이 어느 정도 일치됐다. 문제는 협동조합 문화이다. 법적인 형식은 내용에 맞았지만, 활동의 내용이 법적인 형식을 못 따라갈 수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문화가 잘 짜져야 한다. 방법은 조합원과 참여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문화가 협동조합을 완성한다

**오세영**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의미를 절실히 느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보다 가족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사기 위해 조합원이 된다. 하지만 들어와서 한살림의 문화를 배워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일반 대형 마트에서 '맹처리'로 물건을 한정판으로 싸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려고 달



려들어 이수라장이 된다. 반면 한살림 물품들은 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물품이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한정판들이다. 대형 마트라면 '땡처리'처럼 서로 사려고 달려들겠지만, 한살림 조합원들은 모자라면 두 개 사야 할 것도 남을 생각해서 하나만 산다. 새로운 조합원이 여러 개를 사려고 하면 오래된 조합원이 안 된다고, 한살림은 서로 나눠 먹는 문화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걸 볼 때마다 이런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기태** 맞는 말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란 말이 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다. 19,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전 국민 의무교육이란 게 없었고, 교육을 받으려면 큰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당시 고등공민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교육을 시작했다. 조합원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협동조합은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중요한 첫발은 협동조합이 내디뎠다. 문제는 요즘 공교육이 협동조합적 마인드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사회 교과서를 보면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합리적으로 되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협동조합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세영**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거 같다.

얼마 전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 협동조합기본법 통과와 관련해 콘퍼런스를 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다른 과도 아닌 경제학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 기뻐다. 사회적으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협동조합, 영역 확장을 위해

**사회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 진영이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 역량이 궁금하다.



**김기태** 농협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들이 가진 영역이 무척 크다.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이 440조 규모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농협중앙회가 실질 콜금리를 결정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 신탁과 새마을금고도 자산규모로 보면 마찬가지로이다. 생협도 일본 생협의 아이디어 빌려 왔지만 지금은 일본보다 생활협동조합의 가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 처음보다 매출은 15배, 조합원 수는 8배 늘었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이다. 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라 만들



어진 곳이라고 해도 자산의 규모나 성장 속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집중돼 있고, 금융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사회영역으로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역량이 되느냐의 관건은 2, 3차 산업을 만들 때 기존 협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렸다. 우선은 협동운동을 하는 쪽에서 유연한 자세로 기존 협동조합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이나 신탁이 실제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자꾸 내치면 저쪽은 계속 긴장하고 움츠러들게 된다. 협동조합 진영은 덩치는 작아도 시대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어 포용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2, 3차 산업이 잘 되려면 사람과 같이 심장 즉, 금융과 위 즉, 소화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돈이 잘 돌고 상품이 잘 소비돼야 한다는 말이다. 농협은 매장을 4,000개나 가졌다.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곳은 칭찬하고 확산되게 도와야 한다.

**박준영** 소장님 말씀처럼 기존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현장에서 중요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생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쪽은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소소한 것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각 농협중앙회나 지역중앙회들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층이나 지하 등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곳은 공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시도를 안 하고 있다. 또한 생협은 생활 영역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비교적 의식이 가깝다는 노동조합과도 협력이 잘 안 되는 거 같다. 그 모든 걸 열어놓고 어차피 협동조합은 생활을 조직하고 결사체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원주에서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위상이 크다.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주요 요소들의 그림이 궁금하다.

**박준영** 원주는 자생적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 후 공부방도 생겼고, 상호부조대출을 하는 누리협동조합도 생겼다. 5월 12일 자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일단은 지역 자립기반을 위한 물류협동조합을 만들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가공, 소비, 유통, 생산을 묶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그곳에서 작은 협동조합들이 소소히 생겨날 것 같다. 현재 형성에 열세 개 단체가 모여서 횡성친환경가공연합회를 만들

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맞물려서 협동기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3,1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더 모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리 중이다. 마지막으로 원주에 작년에 오신 분들이 1,300명이 넘는다. 이런 방문을 체계화해서 원주를 협동조합 학습도시로 만들자는 계획도 있다. 협동사회, 생명, 평화 등의 가치를 묶어 현장도 투어하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 묶어갈 수 있게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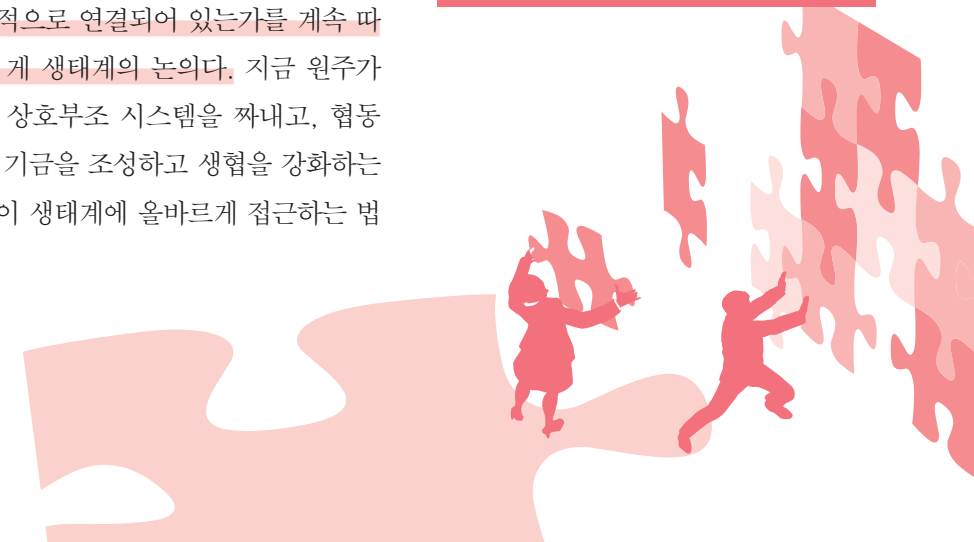
**사회자** 원주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조합원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원주의 큰 그림 아래 어떻게 소속되고 이바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요즘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기태** 원주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란 이름을 만든 것도 그런 고민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생태계 등을 따로 두고 말하는 데 실은 원주처럼 협동사회경제생태계로 크게 바라봐야 한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기본은 심장과 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계속 따지는 게 생태계의 논이다. 지금 원주가 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짜내고, 협동조합 기금을 조성하고 생협을 강화하는 것들이 생태계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자협동조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곳이 바로 직장이고, 자기 삶의 일부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유형에서 조합원의 실제 참여 수준과 기대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느 수준까지 끌어들이 것인지 문화 속에서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주민에 관해서도 각 주민에게 당신이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주고 공동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니즈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없는 협동조합이 뭔지 그 지역 주민을 통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며

**사회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나오는데 반영하고 개정해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박준영** 두 가지가 취약한 것 같다. 첫째로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처하는 갈거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런 협동조합의 조건을 너무 공익적인 틀에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참여자 자체가 국가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취약계층인데, 그분들 자체를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등 협력할 게 많은데, 기본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약하다. 정부의 위탁사업을 협동조합이 맡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배제하고 소외된 사업, 비주류 사업에만 매달리면 협동조합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오세영** 혜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많은 영농협동조합이나 자활공동체들이 회사 법인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있는 곳이 많다.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때 혜택이 줄지 않을까 망설인다. 인증을 받았을 때만큼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때 혜택이 유지되거나 실

익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은 다들 간만 보고 있다. 시행령이 그런 혜택을 담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

**김기태**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것이 한국이 60년간 유지했던 법체계와 상당히 달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었다. 한국 법체계에서는 비영리법인이란 배당 안하고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기부만 하면 됐다. 중간에 위탁사업을 하든 돈을 어떻게 벌든 아무 상관 없었다. 그렇다보니 협동조합은 사익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비영리법인과 달리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지 무리하게 만들 수 없다. 시행령 규칙 15가지 안에 최대한 넣어야 한다. 또한 상호부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다. 이것이 법으로 들어간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어서 법적인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사업범위를 어떻게 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의료생협 같은 경우 유사의료생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생협 기준을 기존 그대로 조합원 300명이상이 모여야 인가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사의료생협의 폐해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어렵다. 우리는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상위법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위법들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부처마다 기준이 다르고, 특

히 인허가권 문제나 협동조합이 주택의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법과 연결되어 있다. 기존법을 고치든가 기본법에다 그걸 예외로 한다고 일일이 들어갔어야 했지만 배제규정을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의 세제특례도 바뀌어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의무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우선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법을 넣는 경우가 없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서명적 규정만 들어가 있다. 그걸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에 나와 있는 것을 쓸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오 과장님이 말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본법에서는 힘들고 시행령 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빨리 정보를 모아주셔야 한다.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인허가권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려울 것 같다고 먼저 말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지 않은 기획재정부나 법제처는 영원히 모른다. 쇠도 달렸을 때 때려야 한다고, 지금은 고치기 쉽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놨다가 지금 국회 때 통으로 올려서 급속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거다. 후속입법조치라고 하면 별말 없기 때문이다. 지체하다 내년쯤 하면 그 자체가 개정 운동이 돼버리는 거라 힘들어진다.

**사회자** 협동조합은 정부의 관계에 있어

서 선을 긋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 같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서도 자율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박준영** 사회적기업을 봤을 때 사회적일 자리를 지원하는 분야는 대부분 자립기반이 없다. 협동조합 만들 때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든다고 할 때, 기존 형태의 연속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하는 것도 스스로 판단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워낙 외양이 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 협력사업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재무교육도 돼 있고, 인적 사용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 예전에 이탈리아를 가보니 청소사업이나 노숙인 자활사업은 협동조합이 많이 하고 있었다. 조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 과정 통해서 지자체 공무원이 가진 경직된 사고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재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

**오세영**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재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위장 부분 즉, 소화 역할을 도왔으면 한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조그마한 두부공장에서 만든 두부를 성남에 있는 여러 생협에서 쓴다. 생협에서 호환해주니 매출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작은 개개인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

합이 생협에 직접 컨택하기 쉽지 않다. 그 역할을 재단에서 해주면 좋겠다. 착한소비365처럼 홍보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협 자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 환영하는 편이다. 물론 물품의 질이 좋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준영**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난 후 여러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원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면 신생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많아지면 네트워크가 힘들어진다. 협동조합이 많아지는 만큼 양질의 조합이 보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큰 협동조합 조직체들이 작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게 옥석을 가려주는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한다. 원주도 작은 협동조합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계속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는데 민간 균형을 맞춰 협력해서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부처만 교육을 하면 교육 내용이 편중될 수도 있다. 정부가 교육할 때는 민간이, 민간이 교육할 때는 정부가 와서 서로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 중간 역할을 재단이 해주면 좋겠다.

**김기태** 함께일하는재단은 아세스 등 국제 협력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 등 청년들과의 교류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대



기업 모금이 가능하다. 이는 삼대 종교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낸 핵심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단을 스쳐 지나간 사회적기업이 많다. 만약 그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잘 사는 협동조합의 인격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설명하고 소개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별 모금 기금을 만들기 위한 전국 단위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대기업과 함께하는 모금 등을 해주면 좋겠다.

**사회자** 재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들으니 앞으로 함께일하는재단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경제 내의 위와 심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비 오는 곳은 날씨에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W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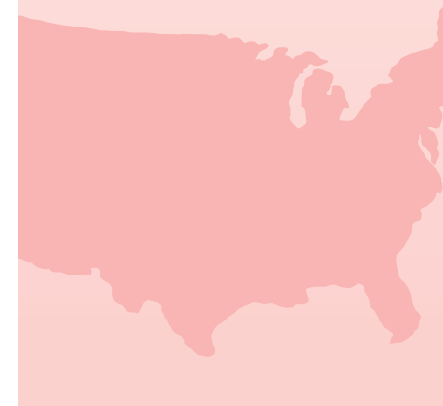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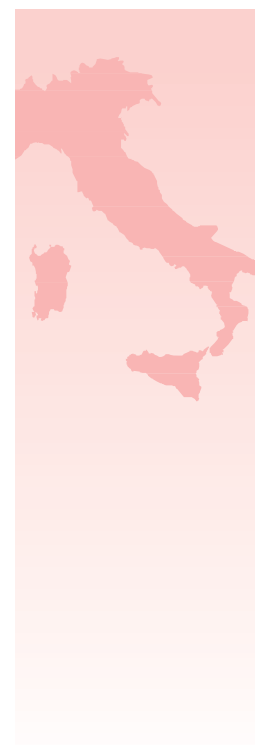
# 세계 협동조합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보다

글 이은주 (홍보팀)

우리 조상은 농사철 급한 일손을 이웃에게 빌렸다. 물론 시세에 맞는 대가도, 다시 일손으로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었다. 오로지 이웃의 선의와 믿음으로 이뤄진 노동 거래였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이런 두레와 품앗이 문화는 우리네 가장 오래된 노동관습으로 마을의 한해 농사와 공동체를 지켜왔다. 19세기 중반, 산업자본주의가 전 세계 경제를 잠식하면서, '협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는 퇴색됐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가 가져온 한계는 명확했다. 무질서한 금융 자유,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환경파괴 등은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단념시켰다. 반면 협동조합운동은 1억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으며, 세계화에 맞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현재 노르웨이의 협동조합은 전국 유향 생산량의 99%를 출하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발달한 일본에선 가구 중 3분의 1이 생협 조합원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미국조차 인구의 40%가 협동조합원이며, 특히 주택협동조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협동조합의 계속된 번영과 확대는 협동조합 방식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순한 가치로서의 '협동'이 아닌 다가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조합 세 곳을 소개한다.

## 공존의 가치 공존의 문화

이탈리아의 레가협동조합(전국조직 전국협동조합·공제연합회의 줄임말)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이다. 조합원 수 830만, 회원 수 1만 5000, 사업금액은 대략 77조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연맹 중 하나이다. 모든 경제 부문에 협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이탈리아의 가장 오래된 협동조합연맹답게 레가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의 구성 또한 다양하다. 소비자협동조합, 고용·생산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보험·문화·여행·스포츠·여가 관리 등이 포함된 협동조합, 장애인이나 농업의 이차 산업 등의 활로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기관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송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전국소매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전국서비스 및 관광협동조합, 저널리스트·출판 및 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 후생·공제협동조합 등이 있다. 빠진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조직돼 있는 레가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하다. 조합이 소속된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듯 레가협동조합은 소속 조합의 권리와 이익을 지킨다. 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기면 대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중재하고, 초국적 자본의 공격에서 조합을 지키기 위해 세계 협동조합연맹들과 연대하기도 한다. 또한 소속 조합이 이탈리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표가 돼 여러 이슈를 조정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소속협동조합 간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레가협동조



합에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금융 등을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이를 이용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들 때 외부 영리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모두 소화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건물은 소속된 주택협동조합에서 도맡아 하는 식이다. 이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금융 불안 등 외부 시장의 불안정한 요소에서 조합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가협동조합은 1886년 이탈리아 전국 단일 협동조합연맹으로 만들어져 30년간 그 위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점령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사라지거나 어용형태로 변질됐다. 한 때 2만 5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들 중 1만 2000개의 협동조합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파시즘이 끝난 1945년 8월 28일 레가협동조합은 다시 재결성돼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했다. 전쟁과 파시즘 그리고 세계화 등 여러 시련에도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우러져 사는 협동 문화를 이어나 온 덕분에 이탈리아에는 법적으로도 협동조합을 돕는 우수한 안전장치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프 펀드이다.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수익의 3%가 코프 펀드로 자동 입금된다. 만약 협동조합이 망하거나 문을 닫아도 남은 돈은 코프 펀드로 가서 다시 새로운 협동조합을 지원하거나 결성할 때 쓰인다. 협동조합을 돕는 협동적인 펀드인 셈이다. 코프 펀드와 별개로 레가협동조합은 1994년 협동조합 개발 기금을 만들어 24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064명을 새로 고용하기도 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세금 감면도 받는다. 이탈리아에서 일반 기업은 수익의 100%에서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의 30%에서만 27.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수익 70%는 협동조합을 위해 쓰인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탈리아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게다가 협동조합이 이익을 남겨 새로운 협동조합에 재투자하면 한 번 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도 있다.

이탈리아는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을 만든 후 현재까지 소외계층 25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집단적인 책임으로 바꾼다. 경제적 소외계층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레가협동조합의 가치는 이런 문화에서 나온다. 1995년에 만들어진 레가협동조합 가치 현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

'조합원은 모든 종류의 상호부조에서 근본적인 핵심축이며, 조합원과 사회적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서민과 함께 산다, 캐나다 신협

캐나다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인 3분의 1 이상이 신협에 가입한 조합원이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은 우리의 제1, 2금융권 대신 은행(Banks), 신협(Credit Unions), 신탁(Trust Company) 등으로 구분하지만, 그 기능이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신뢰도 면에서는 우열이 없다. 오히려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은행보다는 신협 서비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더욱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조합원이 맡긴 신협 예금을 100%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관리 받게 해놓았다. 신협을 통해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신협은 크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신협연합회와 퀘벡 주의 데잘딩그룹으로 구분한다. 퀘벡에서 일어난 인민금융 운동(노동 이익금과 주민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금고를 만들

어, 그 이익금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운동)은 현재 1300개 이상의 신협, 500만 명의 조합원, 480억 달러의 자산으로 발전했다. 퀘벡 지역에서는 신협의 점포 수가 일반은행의 점포보다 많으며 지역예수금의 3분의 1 이상, 소비자대출의 3분의 1, 상업대출의 4분의 1, 모든 농업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퀘벡인민금융경제총연합회를 설립해 '불어권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고안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신협이 성공한 비결은 지역공동체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며, 신협의 윤리적 정체성을 지켜나간 데 있다. 그들은 지역투자기금을 조성해 지방기업을 지원하며 퀘벡에서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달리 자기 지역의 기업은 그 지역이 컨트롤 가능한 자본으로 투자하고 키운다는 공동의식이 강한 것이다.

캐나다 신협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가 거의 없는 저소득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출 심사문제, 사후 감시문제 그리고 미상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신협의 소유자이고, 서로에 대해 매우 잘 알 수 있게 소규모 조합으로 구성함으로써 대부자의 심사, 사후 감독 등의 문제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이 기피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가게에 대한 대출 등도 크게 개선했다. 캐나다의 신용협동조합이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고객이 신협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거래와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민과 소규모 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캐나다 신협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받는 과정을 넘어서서 그 수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개선시켜 그 이윤이 다시 조합원과 신용협동조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캐나다의 데잘딩 신협그룹은 지역투자기금을 따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기부금, 장학금, 상호부조 등에 총이익금의 43%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지역 환원은 지역의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퀘벡 주 대부분의 비영리조직 계정이 인민금융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인민금융은 조합원 배당 이외의 잉여금 일부를 사회적, 혹은 지역공동체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퀘벡 주에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대협동조합이 발전하기도 했다.

금융기관들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대형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협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및 예금 연계 서비스로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속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캐나다의 신협의 행보는 이 시대의 진정한 블루오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소비자 운동을 너머 대중시민운동으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성장해 왔다. 일본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약 652개의 생협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2200만 명 정도이다. 이는 노동조합 연합인 레고의 800만 명보다도 훨씬 대규모조직이다. 규모도 만만찮다. 1990년도에 자산이 2조7000억 엔을 달성했고, 1980년도부터 10년간 2.5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했다. 물론, 일본 생협의 이런 빠른 성장배경에는 일본의 고속경제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정치·경제의 부패, 빈부격차, 군비의 확산, 공해 및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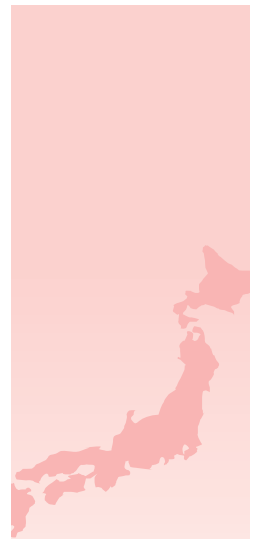


전후 일본은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 크게 결집·발달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급속히 성장해 1947년에 6500개로 늘어나 식품을 공급하는 대량 공동구매조직으로 성장했다. 그 후 20년 동안 소비자협동조합은 지역 생협, 직장 생협, 대학교 그리고 위성도시 생협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됐다. 이 시기 일본의 생협은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일본의 생협처럼 대형 슈퍼마켓 등에 밀리고 있었다. 영국은 경제침체기와 맞물려 조합들이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합병을 실행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반조직 등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과 헌신적인 운동가의 노력으로 합병과 쇠퇴를 멈출 수 있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의 결사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대신 '생활자'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생협 운동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1964년에 츠루오카 생협은 조합원들을 반(班)이라고 부리는 약 10가구 내외의 소그룹으로 조직했다. 이 반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대부분 주부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65년에 전국생협연합회가 중앙구매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자 생협들은 제조업체에 대하여 구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직접 생산에 간섭 혹은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생협브랜드가 개발됐다. 또한, 주부로 이뤄진 생협 조합원들은 순수 우유를 마시자는 운동을 일으켜 유제품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이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다는 점을 알렸다. 그 후 생협은 농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순수 우유를 공급받기 시작해 우유 유통시장에서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을 1%에서 4%로 증가시켰다. 우리식의 '불만제로' 운동이 주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생협브랜드 제품으로 바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생협이 공동구매와 생산의 영역 등 생활 전반에 활동이 미치지 자연스럽게 지역의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의 그린 코프는 규슈에서 땅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반대운동을 일으켰고,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생협 조합원 중에서 후보를 세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참여시켰다. 세이카즈 크라브 가나가와는 가나가와 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시키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두 번까지 출마할 수 있으며, 2004년에는 가나가와 현 내의 17개 시와 촌에서 34명의 여성위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일본 생협은 경제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지역문제, 환경문제, 생활자의 직접참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구매조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소비자이면서도 생활자로서의 지역운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 대중시민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wit**



### 참고자료

-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존스톤 버첼 지음·장종익 옮김 / 들녘 / 2003)
- 뒤영밭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지음·김형미 외 2명 옮김 / 푸른나무 / 2011)
- 캐나다신협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이안 맥퍼슨 지음·구정욱 옮김 / 신협연구 제55호)
- Moses Coady The Humble Giant(짐 라츠 지음·심태영 옮김)
- 신용협동조합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장종익 지음)
- 캐나다신협의 운영체제 비교와 역할\_이사회와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중심으로(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11 연수보고서)



**인디문화,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다.**

취재·글 송소연 (홍보팀)

재단은 올해 3월 청년들을 위한 가치 있는 일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어람미디어와 단행본 『내일을 부탁해』를 출간하였다. 단행본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15인의 멘토를 만나 일과 직업에 대한 상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 15인의 멘토 중 재단의 비전과 동일한 '지속가능성'이란 가치를 추구하며 인상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 있었는데, 인디레이블 '붕가붕가레코드'가 바로 그곳이다. 청년 당사자이기도 한 고건혁 대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오래오래 즐기고 함께 나누고 싶어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도 인디음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현실 파악 능력으로 더욱 인상적이었던 그와의 만남을 나누고자 한다.

**곰사장님으로 더 유명하시죠? 하고 계신 일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붕가붕가레코드라는 음반제작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요샌 음반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서 음반제작자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음악을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팀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서 좀 알려진 편이고, 현재도 7개 소속팀들의 음반 제작과 홍보, 이후 활동과 같은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밴드 멤버로 참여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쉽지 않은 인디음악계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요. 아마 제 또래가 10대 때 한국 인디음악을 처음 들었던 세대일 거예요. 영미 록 음악만 듣다가 한국에서 생겨난 인디음악을 듣고 아, 한국어로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봤으니까요. 10대 때 본 것들이 각인이 돼서 어떻게든 음악과 관련된 걸 하고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문화, 미디어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학내 창작곡 모음 음반을 낸 것이 붕가붕가레코드를 만들게 된 계기였어요. 대학에 있는 팀들 중에 자기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모아서, 사실 대학의 동아리들이 자기 음악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연 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연은 일회적이고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대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하나의 문화 권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음반 같은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전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에 참여했었고, 그때 참여했던 뮤지션들 중에 몇몇 뮤지션들과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도 뭘 좀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붕가붕가레코드였고, 사실 만들 때는 동아리라는 개념이 컸던 거 같아요. 다만 달랐던 거는 동아리가 대학 때 잠깐하고 그치는 거라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계속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런 마인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했으니까 회사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지속가능한 탄따라질'이란 모토에 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지속가능한'이란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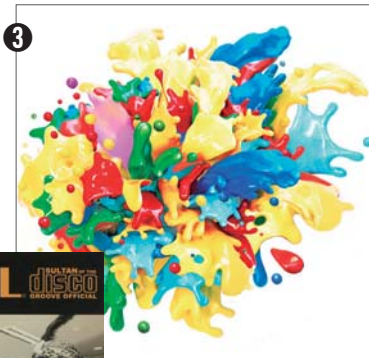
저희가 서울대 안에서 처음 음악 활동을 할 때는 음반을 내도 많이 팔리지도 않고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음악 산업 환경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음악을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지속성이 필요할 거 같았어요. 아무리 음악을 못해도 조금 자질이 있다면 10년 넘게 음악을 하면 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10년 넘게 음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걸었던 게 지속가능한 탄따라질이라는 모토였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탄따라질이라고 했을 때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측면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거죠. 성장과 생계적인 배려 그걸 다 잡아보자는 건데 자기 음악적인 입지를 굳히지 않으면서 생계적인 활동도 유지할 하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활동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업과 공존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란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속하기 힘들 거 같았기 때문에 모토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1



2



3



4

- 1 아마도이자람밴드\_슬픈노래\_cover
- 2 술탄 오브 더 디스크\_Groove Official\_cover
- 3 장기하와 얼굴들 2집\_cover
- 4 눈뜨고코베인 3집\_Murder's High\_cover

**붕가붕가레코드의 탄생 배경 때문일까요? 회사의 현안을 결정할 때 전원회의제 같은 일반 회사들과는 남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요.**

동아리에서 출발하다보니 많은 부분이 아마추어적이기도 하고 소꿉놀이 같은 측면이 있죠. 반면 실험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뭐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사회주의라는 걸 기업 단위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회사를 다 소유하고 회사의 수입을 다 가진 다음에 분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일한 만큼 공공의 자산이니까 나눠 갖는 형태로 가자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권도, 돈도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도 이견이 많아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예순까지는 해야 그걸 지속가능한 탄파라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반 제작만 할 생각은 없어요. 음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처음 회사를 구상하셨을 때랑 현재,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다르죠. 생각했던 거랑은, 사실 장기하와 얼굴들이 이렇게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

고...한 팀이라도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면하고 생각했는데, 사실 장기하와 얼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레벨은 넘어 갔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레벨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희는 취미로서 계속 음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일이 된 거고, 사는 게 예측대로 되는 경우가 없는 거 같아요. 10년 전에 돌이켜 보면 10년 후에 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잘 안나요. 처음에 뭘 생각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18평 아파트에 보험료 같은 복리후생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신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최소한 중류층에 속할 정도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뭐 아파트 애길 했던 것도 그런 실질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을 하면서 변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걸로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 걸 벌려고 하니까...저희 같은 사업의 경우는 농사일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오래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현명하게 분배하고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는거죠.

**그래서인지 최근 개인적인 활동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디 음악계에 속해있는데 장사가 안되잖아요. 장사가 되려면 어쨌든 시장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음반 중심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지금 디지털음원이 7,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음원 시장이 지금 건전하지가 못해요. 가요계 구조가 너무 형편없이 싸게 설정이 되어 있어 음원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 증대는 안되죠. 상업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을 바꾸려면 공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정책적, 입법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상업적, 사업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해서 사람들 접근이 쉽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 그런 걸 계속 확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독립음악제작자모임 같은 것, 페이퍼 같은 것 그런 쪽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대표로서나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빨리 졸업을 하고 회사에 전력투구를 해서 새로운 음악 기반 서비스를 개발해서 인디음악 시장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업만 봐도 트위터를 통해 저희 아티스트들에 대한 얘기가 퍼져도 수익으로는 연결이 안돼요.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의 취향이, 음악 취향일 수도 있고 책에 대한 취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가...근데 요새는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세

스를 연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음악 취향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디음악을 유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고.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들이 할 수 없는, 다른 대안적인 매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한 2~3년 했고, 실제적으로는 잘 되진 않네요. 그런 거 하려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끝으로 다시 무대에 직접 서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뭐 연주 같은 건 취미 삼아 해볼 생각이 있는데 음악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운동 같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타치는 거는 운동 같은 거고. 별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소비자일 때,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왜 제가(웃음). 장기하 같은 친구 노렐 만드는 거보면 연구의 연구,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는데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고. 다만 저희랑 같이 일하는 아티스트들을 고르는 기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아티스트들도 그런데 그런 영감을 줘요. 기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영감을. 특히 장기하와 얼굴들이 대표적인데 장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 그 친구가 다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친구의 기획이 가장 세곤하게 뽑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밴드들도 대부분 그렇고. 밴드들 스스로 기획을 해갖고 저는 왼손 같이 거들뿐이죠. 그게 충분히 재미가 있고. 의미도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wi



## 도시 속 가족의 빛깔 찾기 미술 여행



글 김규성 (전략팀)

재단은 희망TV SBS 모금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2009년부터 부모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Light a Lamp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8개 수행 기관을 통해 55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결합한 미술 교육으로 인상적인 지원 모습을 보여준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의 아동 미술교육 프로그램 '조슈아 나무'의 수업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조슈아 나무와 함께하는 특별한 미술 여행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 가족이 지닌 색깔과 모양은 어떤지 모르고 지나간다. 사실 그 속에는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수많은 일상과 표현이 담긴 언어와 작품들이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지친 아빠, 엄마는 침묵하기 일쑤다. 조슈아 나무가 운영한 프로그램은 Light a Lamp 사업을 통해 (조)부모, 자녀들이 함께 열린 대화의 방식을 찾아보는 <가족관계 감수성 함양을 위한 특별한 미술 여행>이다. 이들은 미술 체험 워크숍에서 가족의 미적 감수성을 확장하고 풍부한 표현을 통해 소통 능력을 기르고 관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며  
이야기해주는군요.”

“  
노니깐 완전 좋다.”

### 첫 번째 여정 “아이 사랑 워크숍”

아이 사랑 워크숍은 교실이라는 공간, 각종 미술 재료, 강사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아이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된다. 수업 재료들은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수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료 공간 주변에 예쁘게 칠이 된 '쓰레기남남'이라는 글자에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은 재잘거리는 일상 속 수많은 언어와 작품들 속에서 이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네 살부터 일곱 살 아이들은 세상의 빛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빛깔을 찾아나가는 여행을 떠난다. 삼원색에서 혼색으로 변하는 팽이를 만들고, 가족의 얼굴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구성된 10차시의 여정은 조형 원리에 근거해 설계된다. 일상 공간을 낫설게 만들기도 하고 '잘 듣고, 보고, 말하기'의 소통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익숙해지도록 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인사 '눈은 초롱초롱, 귀는 종긋', '조용히, 떠들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로 또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나누는 침묵의 약속. 수업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작품을 공유하면서 교사와 아이 사이의 소통방식을 가족 간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시끄럽고 산만한 것만 같던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은 이들의 눈부신 성장을 살짝 드러낸다.

### 두 번째 여정 “부모 사랑 워크숍”

부모 사랑 워크숍에 참여한 아빠, 엄마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고 인식한 것들을 떠올리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

축삭 재료를 활용한 다(多)감각드로잉, 전래놀이 '땅따먹기', 협동하여 과자 조형물로 만드는 '우리 동네, 과자탑 만들기', 참여 모습을 기록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네 가지 여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며 친해졌다. 몰입하는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실에 근거에 구체적으로 지지의 말을 건네는 교사의 말에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다.





### 세 번째 여정 “가족 사랑 워크숍”

(할머니와 손자는 수업 전에 심리 싸움 중이었고, 할머니는 조금 심통이 나서 수업 중간 중간 교사에게 속상함을 호소했음)

- |  |  |
|--|--|
| <b>교사</b> 오늘 다현이가 한 말 중 어떤 이야기가 선생님 귀에 잘 들어왔는지 알고 있니?                                | <b>교사</b> 다현이는 오늘 할머니 이야기 중 어떤 말이 귀에 잘 들어왔어요?                  |
| <b>손자</b> 우리 할머니 최고야! 우리 할머니 대박이다!   | <b>손자</b> 바르게 앉아라!   |
| <b>교사</b> 할머니 눈 보면서 한 번만 더해볼까? 여섯 번?   | <b>교사</b> 할머니는 그 말을 오늘 몇 번 했는지 아세요?                            |
| <b>손자</b> 할머니 최고다(할머니를 살짝 보며)  | <b>할머니</b> 다섯 번?   |
| <b>할머니</b> ㅎㅎㅎㅎ  | <b>손자</b> 그래서 속상했어요!   |
| <b>교사</b> 할머니 기분 풀리지셨나보다. 웃으시네.  | <b>교사</b> 할머니는 오늘 다현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눈에 띄어 들어왔나요? 여기 분홍색처럼 예뻐나요? |
| <b>손자</b> (할머니를 바라보며 10여초 간 침묵)  | <b>할머니</b> 숨도 안 쉬고 뱀 모양 오리면서 '아후, 아후' 할 때요.                    |
| <b>교사</b> 할머니 보면서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해볼까?  | <b>교사</b> 그렇죠, 숨도 안 쉬면서 꼼꼼히 오릴 때, 정말 달랐어요.                     |
| <b>손자</b> (쑥스러워하며) 할머니 최고다!  | <b>손자</b>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교사의 눈을 바라보며 잘 듣는 모습을 보임)        |
| <b>할머니</b> 할머니도 다현이도 최고다!  |  |
| <b>교사</b> 할머니, “예쁘게 그려봐, 누구 그릴 건데?”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최고고 대박이고 예쁘네요”라고 다현이가 그랬지요? 좋으시겠어요. |  |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한 가족의 마음 나누기 중)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기’에 조금 익숙해진 아이들과 부모들은 가족 사랑 워크숍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 미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 가족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가족 팽이 만들기>이다. (조)부모,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혼색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가족 팽이를 만드는 동안 가족들은 마음에 속 드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색상과 연결 지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통을 이루어간다. 특히 자존감이 떨어져 낮선 것에 대해 긴장하고 부모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즐겁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익숙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

#### ▶ 참가자 한마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며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이끄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격했고 엄마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함께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미술 활동을 하면서 집중력, 기다리는 인내심, 창의적 발상, 협동심 등 아이의 여러 면을 조금이나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 하나, 그림 하나, 색채 하나로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대화하는 방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하루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오늘 입은 옷의 색깔, 오늘 느껴지는 색깔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등 매우 소중한 것에서부터 수많은 ‘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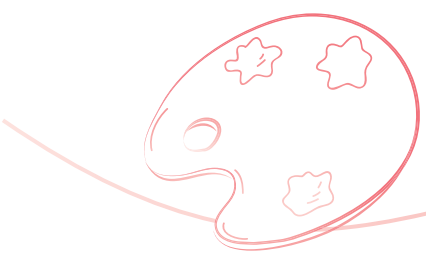
“솔직히 유치원 마치고 아이와 눈 마주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tv, 장난감 등으로 각자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선생님들 도움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아이와 시간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여행지기의 한마디

일주일에 한 번, 조슈아 나무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특별한 저녁 외출을 한다.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 어머니들은 피곤한 눈빛이지만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린 다른 부모들과 인사하며 눈빛에 생기가 돈다. 놀이와 함께 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 속에 숨겨져 있던 천진난만한 얼굴이 슬며시 드러난다. 놀이를 하면서 부모가 먼저 즐겁다는 것을 인식하면 아이들과도 더욱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먹먹해진다. 또 다른 공간에 모인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의 저녁 외출과 새 친구와의 만남에 한껏 들떠있다.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오늘 재료는 뭐예요?”  
 “오늘은 삼원색을 사용해서 이 세상 모든 색깔을 만들어볼까?”  
 “우와! 저는 색깔 마법사가 되어볼래요!”  
 “이 진한 갈색은 나무 기둥의 거칠거칠한 줄무늬 같아요.”  
 “노을이랑 똑같은 노란색, 황금색도 눈에 쑥쑥 들어와!”

아이들의 살아있는 표현이 때로는 가슴 시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부모와 아이들이 만나 가족워크숍이 시작되었다. 갖가지 빛깔들 속에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을 다시 발견하고 만난다. 가족 안의 대화가 쑥쑥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오늘 하루도 나는 미소 짓는다. \_양혁진 팀장 wti



조슈아 나무 미술교육센터는 북미 사막에 서식하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동물들의 인식처가 되어 공생관계를 이루는 등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조슈아 나무처럼 아이들이 남을 도움 줄 아는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한화가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글 김설경 (홍보팀)

재단과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파트너와 그 사업을 소개하는 <파트너ON>. 이번 호의 주인공은 올해 초부터 재단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이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한화는 그동안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이라는 또 다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 한화가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들여보자.



“옛날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지겹고 싫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옛날이 참 그립다. 두부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멸절한 옷이 버려지지 않고, 장애가 있어도 지역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면서 지내던 시절이 말이다.

멸절한 옷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나와 매립지로 가서 오랜 동안 썩지 않아 땅을 오염시키는 동안 한 쪽에서는 새로운 옷을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고치고 바뀌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누군가 더 키워줘야 하지 않을까. 이들을 위해 한화에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저소득 아동 문화예술교육, 점자달력 및 도서지원, 태양광에너지설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온 한화가 이번에는 친환경 사회적기업들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월 28일 재단과 협약을 맺고 시작된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친환경 제품, 재활용, 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한화는 재단과 함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판로 개척, 멘토링, 기타 경영지원 등 해당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에 공모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8개 기업이 선발되었다. 지난 5월 11~12일 최종 선발된 기업의 대표단들이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선정 기업들이 지원받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브랜드 마케팅, 1:1 멘토링 등의 전문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었다. 이후에도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KAIST와 연계한 비즈니스스쿨을 비롯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WI\***

기관명	사업명
(주)서현플러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주)몽생이	천연염색을 이용한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사업
오방놀이터	친환경 가족놀이문화공간, 우리마을 가족카페 론칭
금산도토리일터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영농사업단 만들기
나눔가게	친환경 생활과 리폼을 위한 시민사랑방
(주)노나메기	자연에너지로 건강한 겨울나기
농촌공동체연구소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빵카페 사업
(주)아이티그린	폐 LCD, PDP 유리에서 유가금속인 은(Ag) 추출 및 경량골재 원료 개발
에코베타니아	EM활용 활성화와 장애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희망을키우는일터 희망자전거	친환경 녹색산업 희망자전거 살리기
주식회사 비비컴퍼니	조립식 쌀화환 사업을 통한 나눔 실천
(주)백두리싸이클링	해양폐기물고형원료화 사업
대지를위한바느질	에코웨딩문화 확산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생산시스템화
E-zerowaste녹색미래컨소시엄	정부, 기업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기업 공동 마케팅 사업
오가니제이션요리	친환경 밥상과 도시텃밭 재배 및 네트워크를 통한 푸드마일리지 '제로' 시도
(주)오르그웃	에코패션 네트워크 사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소평몰 개설 및 통합 이미지 만들기
미래ENT	대형원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감소

## 인터뷰 한화그룹 홍보팀 강기수 상무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가기 위한 상생의 디딤돌

취재·정리 정영은 (홍보팀)



사진제공=한화그룹 홍보팀

### ▲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정태길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국장, 장일형 한화그룹 사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윤수경 고용노동부 서기관, 강기수 한화그룹 홍보팀 상무.



**‘칭찬받는 기업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화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사업으로 그룹의 전 사업장이 함께하는 그룹공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공부방 지원사업, 장애-비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교육 등을 진행했는데, 특히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교육은 국내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11 한국메세나 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에 환경을

접목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환경인식 가꾸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인 ‘Happy Sunshine 캠페인’과 현재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친환경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Happy Sunshine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1년 1차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전국 20개 복지시설에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30여 개 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를 위한 의료비 및 가내 의료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부터 배포하고 있는 사랑의 점자달력은 매년 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새해를 맞는 기쁨을 주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점자도서도 매년 5000부씩 제작, 지원하는 등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나 ‘유급자원봉사제’ 등 선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배경, 즉 한화만의 사회공헌 철학과 신념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화그룹이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52년 당시 창업이념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전통을 살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구현해 왔으며, 그룹의 기본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전국 각 계열사에서 600여 개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한화의 사회공헌 활동 철학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에 회사가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제도’와 임



직원들이 언제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자원봉사제도’가 그러한 철학과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는 앞으로도 일회성, 홍보용 이벤트가 아닌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후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펼쳐왔지만, 이번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처럼 기업으로서 또다른 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식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화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요?**

한화는 작년 11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생, 친환경, 복지’ 분야를 테마로 한 ‘한화 공생발전 7대 종합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선정한 공생발전 프로젝트는 ▷중소기업형 사업 철수 ▷협력업체 지원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 확대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이 있는데,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지원사업은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겠다는 그룹 김승연 회장의 동반성장 철학의 실천적 의지로써,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다는 바람으로 시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판로 개척, 멘토링, 기타 경영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을 할 계획이며, 종료된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친환경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셨을 때의 첫 마음과 짐,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적 미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선택하여 설립하셨을 때에는 그만큼의 기대와 큰 뜻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경영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초창기 사회적 목적이 잊히기도 하고,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지원은 1년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지원이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체 및 객체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고 싶거나 준비 중인 사회공헌 분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발을 내딛는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해당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발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더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화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따뜻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wt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들의 리얼 성장기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글 송아영 (성장지원팀)

예전부터 문화예술분야의 직업군을 가진 자유로운 영혼들을 줄곧 동경해왔었다. 웬지 그들의 영역엔 특별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사회적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인큐베이팅하는 '별별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동경해왔던 자유로운 영혼들이 들려주는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왜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인가?

2011년 12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644개에 이른다. 이 중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 사회적기업은 96개로 전체의 약 14.9%를 차지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 49개, 2011년 31개로 최근 2년 사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 사회적기업들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이 많고 고객보다는 수혜자 지원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이 분야 사회적기업들도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사회 기여도가 높은 조직이라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에서 한걸음 나아가 단기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을 기획하였다.

##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에 주목하라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문화예술교육 아이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이는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1년 6월까지 진행된 1차 '별별솔루션 아이템 개발비 지원 사업'에 이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2차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줄을 이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10개의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1차 서류 심사부터 1박 2일에 걸친 오리엔테이션 방식의 심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성을 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



서 열린 2차 심사는 '별별 오리엔테이션 STAR를 찾아라'라는 콘셉트로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는 소셜미션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을, 다음날에는 전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업의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캔버스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위원들은 각 기업들이 작성하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1년 중 가장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열려 참가한 사회적기업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행사장은 내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 60일간의 별의별 솔루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슈퍼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다

별별솔루션 사업은 소셜미션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전문 컨설턴트와 경영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가 개별 기업에 밀착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기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차별화 및 콘텐츠 보완, 소셜미션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명확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재단의 인큐베이팅 전문 컨설턴트들은 자신이 맡은 기업을 두 달간 거의 매주 방문하면서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을 다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평소 듣고 싶었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 일부는 시장조사(소비자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까지 시장조사(소비자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처음에는 무척 생소했지만, 이번 사업이 끝난 후에는 시장조사(소비자조사)가 자기 기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1월 중순에는 '별별솔루션 중간점검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기업들은 분야별 전문가와 컨설턴트와 함께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을 점검하고, 전문가 특강과 네트워킹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치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로 손꼽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인 '제주올레'의 사업모델에 대한 안은주 (사)제주올레 국장의 강의는 자연을 중시하며 협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영의 조화로운 상생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듣고 직접 걷는 올레길은 이들에게 더욱 뜻 깊게 다가왔다.

두 달이 넘는 시간은 바쁘게 흘러 어느새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결과보고회'로 결실을 맺었다. 2월 24일 오후 사회적기업 '카페 슬로비'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업들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열정적인 발표로





주어진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자신들의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캔버스를 설명하는 기업들을 보며 이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 물품과 기업들을 위한 선물은 모두 사회적기업의 제품으로 준비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이들이 자신의 기업을 되돌아보고 진단함으로써 비즈니스모델로의 개선사항을 고민하고 찾아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2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로 '2012 별별솔루션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올해 별별솔루션은 지역 및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과 더불어 성장 단계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컨설팅 사업'의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속가능한 컨설팅 사업'은 성장 단계에 접어든 문화예술 교육 사회적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설계되어 대상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별별솔루션 사업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별별 사업을 말한다~ 막간 인터뷰**

**▶ 유연성 재단 컨설팅 멘토**

대한민국을 들썩인 전국 프로젝트! 별별솔루션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고자 합니다. 전국 곳곳, 다양한 아이템의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틀을 적용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미 대한민국을 한 번씩은 들썩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별별 기업들이 1년 내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 날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짧은 기간 내에 전국의 사회적기업가들과 만나러 가다보니 제 인생 최초로 서울역 단골이 되었습니다.

**▶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

별별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시장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 계속되는 컨설팅과 과제를 수행해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발전시켰고 과연 이게 수익이 될까 막연했던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찾고 검증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담당 멘토의 컨설팅 방법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이러면 안된다, 된다'가 아니라 매번 혼동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의 개념에 대해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희 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인내와 열심으로 컨설팅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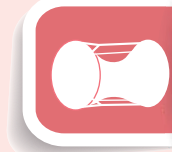


**별별솔루션 참여 기업 소개**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감수성 사이에서 진정한 '공공성'에 대한 고민으로 2006년부터 문화예술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자정 노력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조슈아나무>를 운영 중



**충남교육연구소** 농촌 지역과 농촌 교육의 희망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확신으로 2000년 사단법인을 설립된 이후로 공주의 한 폐교에서 농촌교육활성화를 화두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농촌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 창출을 목표로 함



**소리아그룹**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 왔으며,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확산 가능한 국악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함



**에이컴퍼니** 2008년 온라인의 아티스트 팬클럽으로 시작하여 어렵고 고상한 미술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돌려주고자 함



**소셜아트컴퍼니** 10년간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위터와 교육예술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대 예술과 교육 예술을 융합하기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왔으며, '씩티움(sactium)'이라는 문화예술서비스브랜드를 통해 창의적 소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새로운 교육예술모델을 만들고자 함



**한국실험예술정신 샐러드클럽**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 의욕과 교육적 시스템을 연계하는 장르적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술창작 활성화에 힘쓰고 사회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자신감 회복과 진로 설계에 이를 접목하여 사회적 약자로 획일적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선사하고자 함



**와우책문화 예술센터** 2005년 서울 홍대거리에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책과 예술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술문화와 교육의 근분이 되는 책을 이용하여 도서 문화 활성화 및 도(독)서 문화 콘텐츠 개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진행



**동구행복네트워크** 대구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문화 사업 펼쳐 새로운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청소년 관련 활동의 새로운 전기점이 될 적극적 '창의적 체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재생자전거와 예술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소비 중심의 생산 가치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삶의 질 고양 문화를 생산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람과 삶** 생태·환경·다문화 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wi**

#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연대은행(준)'을 소개합니다!

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준비위원장)

“  
구직자, 실업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상호부조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호부조조직!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연대은행'이 그것이다.”

### 청년연대은행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협동조합'이자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청년이 스스로 돕고자 나섰다

'고(故)최고는 작가\*'의 죽음 이후 많은 청년이 가슴 아파했다. 그녀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청년유니온 페이스북 그룹에 한 조합원이 쌀이 떨어져서 굶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순간, 덜컥했다. 혹시나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조합원들이 앞다투어 서로 쌀을 주고 생활비를 보태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몽클했다.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구나. 서로 돕고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월 ○일 일기 중에서

### 고(故) 최고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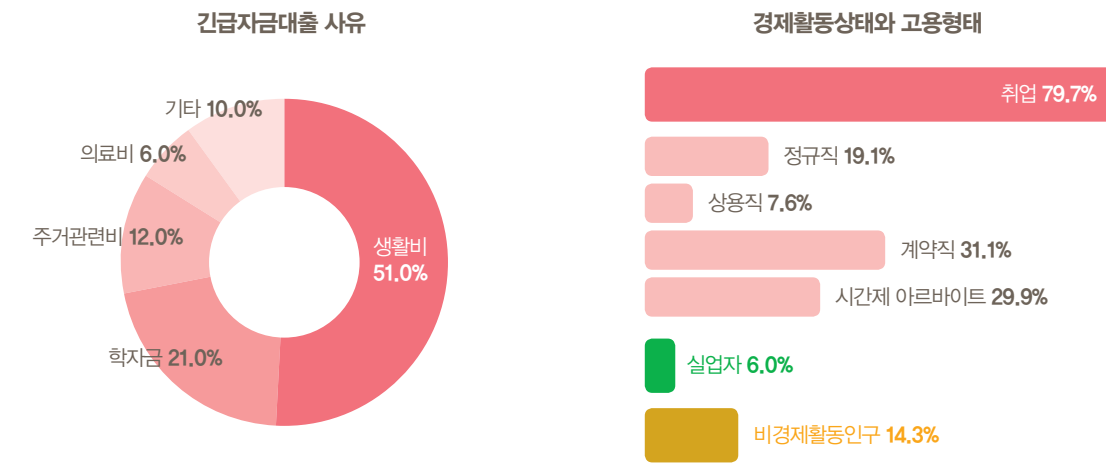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고 최고은 작가는 2011년 1월 빈곤 속에서 갑상선 항진증과 췌장암을 앓다가 3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현재 많은 청년은 고 최고은 작가처럼 단기,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 상황에 고시원 월세, 교통비, 전화비까지 내고 나면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청년이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은 사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사회 어디에도 청년들의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데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직자, 실업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상호부조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호부조조직!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연대은행'이 그것이다.

- ① 활동비 마련을 위한 고구마 판매
- ② 현실치료프로그램
- ③ 취업코칭프로그램 동지



〈불안정노동 청년층의 경제 상태와 사회안전망 욕구 설문조사〉 조사대상 : 15~34세 청년 300여 명



**청년연대은행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까?**  
청년들의 상호부조조직을 만들기 위해 앞서 청년유니온과 재단은 2011년 한 해 동안 '상호부조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15~34세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청년과 사회안전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취업 상태이지만 정규직은 그 중 19.1%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업자들의 월평균 임금도 121만 8000원으로, 48.5%는 평균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9%는 최근 1년 사이 현금이 없어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생활비(51.0%), 학자금(21.0%), 주거관련비(12.0%)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청년연대은행은 이런 '삼포세대'들의 현실에 맞는 금융상호부조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교통비·휴대전화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10만~15만원씩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한 소액대출, 소액저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 외에도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재무상담 교육 및 정서, 직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능상호부조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고자 한다.

4 정서 치유를 위한 춤테라피  
5 현실치료프로그램

6 취업코칭 프로그램 동시  
7 청년연대은행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상호부조**

청년연대은행은 소외되는 청년들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상호부조 조직, 나아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운용하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협동조합'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상호부조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재무 교육과 협동조합 워크숍 등의 정기 모임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의 수다 모임'을 열 예정이다.

청년들 스스로 요구에서 시작하는 '청년연대은행'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가 서로 도우며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의 미래를 다시 꿈꾸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의 모델을 제시해낼 수 있으면 한다.

현재 청년연대은행 준비위원회는 청년연대은행 설립을 위한 '청년호혜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청년호혜기금은 그 시작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립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관심과 많은 구성원의 도움의 손길이 모인다면 이것은 청년 세대를 넘어 전 세대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든든한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wit**

**조금득**님은 전 청년유니온 1기 사무국장으로 청년유니온 활동 전에는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현재는 사회의 오해와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청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연극심리상담사와 금융복지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청년유니온을 통해 다시 꿈꾸게 된 것처럼 청년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살고 있다.

# 조합식의 **잡**생각

## ④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 사회적기업+

- 이슈+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
- W 통신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2탄: 필리핀 캠프봉제센터
- 동고동락 의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는 그들
- 소셜벤처 청년 사회적기업가 3인과 나는 5문 5답
- 좋은 이웃 서비스 그랜트 사가 이쿠마 대표
- 달인을 만나다 (주)인스케어코어 김말녀 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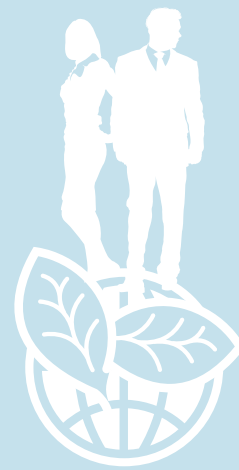


## 99%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정리 송소연 (홍보팀)



지하철역에는 더 넓고 표를 넣거나 카드를 찍는 곳이 더 낮은 개찰구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넓이와 높이를 고려한 것이다.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홍대입구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개찰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다. 많은 짐을 들고 이동하는 노인, 한국으로 여행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외국인들도 이 시설을 무척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건물 입구의 경사진 진입로를 계단 대신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공공 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 또한 마찬가지다. 아이 전용 시설이 없거나 어린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에게 넓고 보조 손잡이가 있는 이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보다 편리할 때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얼핏 보기에 실제 사용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 편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노약자와 같은 특정 연령층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담겨 이용하기 편리하다. 얼핏 특정 계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에게 유용한 것. 바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5년을 맞이하는 현재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인건비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은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창업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은 창업 이후 기업 마다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 관 주도의 정책은 민간 주체들의 역량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 공공 구매 등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낳고 있다. 이는 지자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주체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방식을 바꾼다.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시민들이 주도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관 주도의 정책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체 등의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시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번 호 <이슈 플러스>에서는 올해를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해로 선포하고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의 도전을 소개한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장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의 단단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양질의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은 물론 그 대상을 장년층까지 확대하고, 인큐베이팅센터 입주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지원금을 비롯한 멘토링과 경영지원,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슈의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선정의 전 과정은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가 또는 역세권에 설립하게 될 '서울시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는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최소 3년 이상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이디어 개발부터 실제 창업까지 전 단계가 포함되며, 정보 제공부터 멘토링, 교육, 프로보노 연결 등 전문가 컨설팅이 두루 제공된다.

이외에도 환경, 에너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및 도시농업, 지역재생, 기술혁신 등 10대 전략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계획은 3년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서울은 경기도와 더불어 인증 사회적기업의 40%이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대도시로서의 서울시의 특성은 보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기업가들의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이 더욱 기대된다.



###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허브인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 지원

자치구별, 기업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중간 지원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은평구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옛 국립보건원) 터에 입주할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가 주를 이루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중복 지원이나 단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가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련 연구조사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내 다른 공간에 청년 일자리 마련과 마을 공동체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이 자리 잡게 되어 일자리, 마을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공 부문부터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로 사회적기업을 살리는 소비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는 별도로 수익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큰 비용을 들여 홍보를 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사회적기업 상품은 이미 사무용품, 식료품, 생활잡화, 공연, 전시, 교육, 인쇄·출판물, 청소, 인테리어, 재활용품, 전산소모품, 각종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선택과 의견으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생산자들에게도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사회적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미 '더착한 서울기업'이라는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강화에 나선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돕고자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이다. 쇼핑몰은 전문가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한 입점부터 수시 모니터링과 품질조사와 각종 검사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돕는다.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인 판로는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지역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각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기관과 자치구,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지역내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도 있다. 기존의 자치구 중심 사업은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욕구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업의 발굴과 인건비 등 경영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고자 서울시는 지역단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기관이 직접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형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며 교육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민관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의 총 5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로 함께일하는재단이 사업단의 주체로 나선 금천구는 'WE Collaborate(금천구 협동경제구축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금천지역 공정건축과 봉제사업과 디자인을 결합한 협동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공시운동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활발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이 사업은 국내의 유명 의류제조업체가 있는 패션메카이자 한국 봉제업의 역사성을 지닌 금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활동이 단순히 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wit**



# 강제철거 이주민지역 여성가장을 위한 필리핀 타워빌 캠프봉제센터

글 이철용 (CAMP 대표)



## 정부의 강제철거 이주 정책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사람들

이른 아침 오전 4시 동틀 무렵, 3~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왼손에는 포대자루를, 오른손에는 작은 막대기 하나를 든 채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위를 위태롭게 오른다. 남루한 티셔츠를 걸쳤지만 하의를 입지 않은 아이들도 더러 보인다. 더럽고 위험한 것들이 쌓였음에도 신발도 없이 맨발이다. 각종 위험 요인 속에서도 이들이 아장거리는 위태한 걸음으로 쓰레기를 헤집고 다니는 것은 그나마 쓸모 있는 것들을 찾아 하루 140원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도시 빈민 밀집 지역인 나보타스의 카트몬 지역. 인근 사와타라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강 위에 나무를 열기설기 엮어서 집을 만들고 수십 년째 살고 있다. 개, 돼지와 같이 텅구는 아이들에게 위생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위험한 환경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강제철거 이주정책이다. 위험한 강 위와 불결한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이주민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 타워빌. 필리핀 정부의 강제철거 이주 정책과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마닐라의 도시빈민 지역에서 살다가 트럭에 실려 쫓겨 온 사람들 5만여 명, 6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만 보인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10여 채의 벽돌로 이어진 양철 지붕의 3평 공간에서 보통 7~8명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공간은 2~30년 동안 매월 사용료를 내면서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성년 남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데 이는 이곳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도시로 나가 노숙을 하며 비정기적인 일을 하고 최소한의 수입을 집으로 보내곤 한다. 그러나 가장들은 일당보다 높은 교통비 때문에 1~2주에 한 번 집으로 돌아오다 수입이 줄어들면 소식이 끊기기 일쑤다. 이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엄마와 아이들만이 남겨진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피임이 불가능하여 한 가정에 보통 5~6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 가장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 NGO-지자체-정부가 빈곤 해소를 위해 나섰다

타워빌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긴급구호 등을 진행하던 캠프(CAMP)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 구호 사업을 넘어선 대안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 지역의 빈곤해소를 위한 대안 모델 만들기에 한국과 필리핀 현지의 전문가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10년 4월 말,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적기업, 빈곤, 대안에너지, 생태마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마닐라의 도시빈민 지역과 이주민 지역인 타워빌의 현지 답사에 참여했다. 후속 작업으로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현지 전문가들이 지역민의 10%인 630세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같은 해 9월 말에는 필리핀 조사단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갖고 타워빌 지역의 빈곤해소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로 생각을 모았다. 필리핀 조사단은 현지에 복귀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모임을 계속했다. 그 결과 타워빌 내 4개 학교 6000여 명 학생들의 교복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캠프봉제센터'의 설립이 결정됐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복을 입는 유니폼 문화가 일반적인 필리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아이템이었다.

1년여에 걸쳐 준비해 온 이 사업은 재단의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통한 재정협력으로 2011년 5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재단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캠프봉제센터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비롯하여 지방 정부인 산호세델몬테시의 산페드로 시장을 설득하여 80여 평의 공간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 연계에 적극 협력하였다. 캠프는 지역주민 자치 조직을 통해 40명의 여성가장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기술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 마을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캠프봉제센터

지난해 7월 15일, 타워빌에서 캠프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의 전문가, 재단 관계자, 산페드로 시장과 정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캠프봉제센터 개관식이 있었다. 평소 생기가 없이 조용하던 마을은 한순간에 축제의 무대로 변신했다. 캠프봉제센터로 시작된 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것이다.

필리핀은 영어와 토속어인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는 계층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일부 계층 뿐이다. 대부분의 빈곤지역 거주민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토속어를 사용하는데 타워빌의 경우 대부분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제 교육도 타갈로그어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필리핀의 교육과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TESDA의 협력으로 전문 강사 파견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센터의 봉제 교육은 단순히 재봉기술만이 아니라 옷의 구조와 패턴, 재단, 마무리 재봉까지 옷과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3개월간의 기본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희망의 재발견이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작업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몸 치수를 재며 웃음 바다가 되기도 했고, 서투른 솜씨로 재봉틀을 가동하며 비뚤어진 재봉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산고 끝에 만들어진 유니폼을 들고 거울 앞에서 옷맵시를 다듬던 이들은 순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과 용기는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했던 것이다. 캠프봉제센터는 엄마들이 기술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동안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했다. 같은 건물 앞부분에 유치원을 건립하여 100여 명의 아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매일 전문가의 계산된 영양식을 공급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엄마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손을 잡고 캠프봉제센터로 출근하며 기술교육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교육까지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지역에서 선망이 되고 있다. 처음 유치원이 시작되었을 때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교복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앞에서의 감격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 여성 가장, 희망을 노래하다

지난 11월 중순 캠프봉제센터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TESDA에서 감독관 2명이 파견 나와 기술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 36명을 대상으로 국가봉제기능사 자격시험을 치렀던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국가기능사 자격시험을 치른 교육생들은 이틀간 주어진 과제의 옷을 만들고 기본 소양에 대한 인터뷰에 이르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평소 준비한 실력을 당당하게 발휘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12월 20일에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한 무대에서 수료식을 겸한 멋진 패션쇼가 열렸다. 이날 선보인 작품들은 교육생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떠 재봉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이 직접 자신의 옷을 입고 모델이 되어 워킹에 나서 마을의 축제이자 작은 인간승리를 실감케 하는 장으로서 더욱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격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총 36명 응시생 가운데 14명이 정비기관 TESDA 수료, 22명이 국가봉제기능사 자격증 2급에 합격해 그야말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발휘했다. 캠프봉제센터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의 해외지원 프로젝트인 uGET 프로그램과 컨설팅 회사 AT커니의 최인철 컨설턴트, 무대의상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경인 선생, 우리나라에 환경디자인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몸으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국민대학교 윤호섭 명예교수 등이 가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타워빌의 여성가장들의 희망 일구기에 동참하고 있다. 2012년 새해를 맞은 캠프봉제센터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봉제 기술은 시간이 걸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숙한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 교육을 거쳐 6월 새 학기에 지역 학생들이 입을 교복과 체육복 등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쉼 없이 재봉틀이 돌아가고 있다. **wi**



# 의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는 그들

정리 이은주 (홍보팀)

‘어떤 분이랑 이야기해 보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장남희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서울의료생활협) 상임이사는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며 대뜸 ‘이정찬 선생님요.’ 했다. ‘얼마 전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생활협)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한참을 못 뵈고 있어요.’ 장남희 상임이사는 봄 내음 같은 그리움을 담아 대답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황무지에서 희망을 만드는 기업가들은 그들이 원하던 그렇지 않은 이미 한 배를 탄 동료이자,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진솔한 스토리를 동고동락(同苦同樂)에서 담아보았다.

이정찬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전 이사장)

장남희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 이야기 들어주는 병원

**장남희** 이정찬 선생님, 6년간 해오시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 놓았다고 가시지도 않는다면서요?

**이정찬** 내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뭐, 허허. 요즘은 안성 의료생활협에서 하는 해바라기 중풍 어르신들 일인주간 보호에서 차량 봉사해. 새로 개원한 서안성병원 경영 위원회도 나가고 있지.

**장남희** 아, 그러시구나. 완전 발 빼신 건 아니네요. 안성 의료 생활은 오래된 만큼 하는 일도 많죠? 서울의료생활협도 안성을 모델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정찬** 지금 20주년 준비하고 있으니 오래됐지. 서울은 한 10년쯤 됐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장남희** 원래 저는 신용거래를 하는 비인가 협동조합인 다람쥐회에서 일했는데, 자산은 자꾸 커지는데 어느 날 이걸 키우기만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안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안성에 의료생활협이 있 다던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초기 5년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특히 같이 할 의사를 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구하더라도 자주 바뀌고.

**이정찬** 서울은 그랬을 거야. 그에 비해 안성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으니 시작이 좋았어. 농활 온 의대생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했거든. 의대생일 때는 주말진료를 하고, 졸업해서 안성에 개원을 한 거야. 그 전에 한의원을 먼저 개원했고….

**장남희** 안성은 의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정찬** 환경도 뒷받침됐어. 안성 의료생활협의 태동기인 87년에는 건강보험이 없던 때야. 병원도 별로 없고, 병원 문턱도 높고 게다가 서비스 질도 낮아서 불만이 많았지. 그래서 의료생활협이 만들어지자 지역민들의 호응이 빨랐던 거야.

**장남희** 그래서 더 수월했던 거네요.

**이정찬** 당시 안성처럼 의사가 환자 앞에 두고 친절하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었어. 그냥 말 한 두 마디 하고, 약 처방해 주면 끝이니까. 근데 병원도 없는 시골에 의사

들이 와서 환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 환자들이 밖에 길게 줄 서 있어도 빨리빨리 안 보고 그랬지. 원래 아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 상담시간이 길어져서 줄 선 사람들이 불평해도, 정작 자기가 들어가면 길게 이야기한다니까. 하하하.

**장남희** 지역 의료에 큰 변화를 준 거네요.

**이정찬** 그랬을 거야. 치과 개업했을 때도 대단했지. 십 년쯤 됐거든? 그때도 조합원이 치과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었는데, 지역 치과병원이 난리가 났어. 우리는 원가 공개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게다가 1차 진료에만 집중하니 병원비도 낮아. 사람들이 다른 치과를 못 가는 거야. 하지만 덕분에 한 달에 천 명을 봐도 수익이 안 나는 거. 우리는 수익 나는 거 최대한 안 하고 보험 되는 걸 집중적으로 하니까 내부는 허덕허덕하지. 일반 치과들은 기술이 좋은 건지 우리는 3명이서 환자를 하루 40명 보는데, 다른 곳은 혼자 30명 이상 보니 재무상태가 완전 다른 거야.

**장남희** 우리 병원도 혼자서 환자를 하루 25명 정도 보는데, 의사가 완전히 기진맥진해 해요. 그래도 안성처럼 수익 안 나는 건 마참가지예요. 우리도 보험이 되는 초동 치료에만 집중하고 임플란트 같은 수익 되는 수술은 최대한 안 하니가요.

**이정찬** 그렇지. 결국 비보험 치료는 별로 없는 거지. 그게 돈 안 되는 거잖아. 하하하.

**장남희** 의료생활협은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진료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니까요. 힘들더라도 저버릴 수 없죠.

**이정찬** 하지만 반대로 병원만 하려고 협동조합했느냐는 말이 항상 걸려. 조합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게 항상 고민이지 뭐. 게다가 수익 나는 수술을 잘 안 하고 야간근무도 안 하니까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어. 받아가는 사람도 마음 편치 않겠지. 안성은 워낙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없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임금 착취야.

**장남희** 서울은 반대로 시세에 맞춰 임금을 줘서 항상 적자에요. 이제야 조금씩 빛을 갚고 있어요. 이래저래 고

민은 끝나지 않네요.

## 지역에 뿌리내리기

**이정찬** 그래도 우리는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서울보다 나은 거야. 지역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얼추 의료생활협이 뭔지 다 알거든. 안성이 4400가구인데 출자금이 8억 5000만 원이나 돼. 한 가구당 20만 원씩 내주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하니 조합비 20만 원을 그냥 맡겨. 그런 분위기가 있지. 하지만 서울은 기본적으로 의료생활협이 아니어도 의료기반이 워낙 좋고, 시골 사람마냥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아니라서 힘들 거야. 옆집도 모르고 살잖아? 협동조합은 지역에 뿌리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장남희** 맞아요. 서울은 아무래도 뜨내기가 많지요.(웃음) 저도 일이 바빠서 집에서는 잠만 자거든요. 요즘 서울에서는 마을 공동체 만들자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문화나 조건은 안 그렇고, 지금의 삭막한 환경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마을 만들기 붐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사실 걱정이예요.

**이정찬**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장남희** 또다시 관 주도의 정책으로 끝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의료생활협의 우선 과제는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어보면 지역모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합원이 구마다 흩어져 있고, 심지어 안성에도 있거든요. 구별로 두 세 곳 모아서 해봤는데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모이면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지역 이야기는 잘 안 돼요. 문제지요.

**이정찬** 다른 동이랑 같이하자 하면 안성도 절대 안 모여. 결국 일일이 찾아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 취임 당시 내 목표가 지역모임 활성화였거든. 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조합원들 좋게 해주는 게 최고 목표잖아? 그러려면 조합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건 돌아다니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거거든. 이사장 하면서 1~2년 동안은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 하루 저녁에 두 군데도 가고, 120개 대의원 선거 다 쫓다 다녔지. 그러면서 조합이 어떻게 가는 것이 합당한 건지 조금씩 알겠더라고.

**장남희** 아휴, 그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이정찬** 다 찾아 만나면서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처음에는 왜 저렇게 불만 같지도 않은 불만을 늘어놓나 답답했는데 지금은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불만이 없어져. 사회라는 게 연로를 막아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연로를 열어 놓으니 그걸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 결국, 다 들어 주고 내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 아주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요만한 이야기도 그 양반들한테는 큰 거였던 거지.

**장남희**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일 아닌 거에 불평불만하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활동이라도 좀 열심히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든가 하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사실 우리 한계가 거기 와 있는 거 같아요. 말을 자르면 안 되는데 가끔은 왜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잦거든요.

**이정찬** 설득하고 가르치려 하면 안 돼. 사람 마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끝까지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 가르친다고 배울 사람들도 아니거든. 하지만 들어주면 변해.

### 쉽지 않은 의료생협의 길

**장남희** 선생님은 어떻게 의료생협에 발을 디디게 되셨어요?

**이정찬** 사실 난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 서울로 대학가서 장교로 군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돈 펴평 쓰고 그러

다 돼지를 기르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왔거든. 근데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 환경운동가들 만나러 다니면서 아스팔트 농사를 좀 지었지 뭐, 허허. 내가 그때 대책위원장이었는데 한 5년을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끝내는 소각장 반대를 걸고 시의원선거에까지 나가게 됐어. 근데 상대방에서 금품수수하는 바람에 선거에 진 거야. 선거 한번 쳐보니까 지지해 준 사람한테는 미안하고 표 안 준 사람들은 밉고 그러데? 그래서 다 접고 그냥 돼지만 키우며 살아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의료생협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 내가 참석하지도 않은 안성 의료생협 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이사장을 나로 추천해버렸더라고 민주적으로.

**장남희** 하하하. 다수결이니 민주적이긴 하네요.

**이정찬** 어찌다 맡게 됐는데 여기 일하면서 정말 서민 삶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도 많고,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방에 불도 못 때고 사는 걸 보면서 많은 차별이 있는 걸 알게 됐지. 할 말이 진짜 많더라고. 협동조합이 이런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곳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난 되레 얻은 게 더 많아.



**장남희** 그러시군요.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의외예요.

**이정찬** 허허 그렇지? 장 상임이사는 어떻게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거야?

**장남희** 저는 예전에 어느 대기업에 다니면서 기독노동자운동을 했었어요. IMF 때 해고되고 다람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이 두 번째 직장이었지요. 다람쥐회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중심이 돼 만들어진 단체예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협을 만든 곳이었어요. 다들 비정규직에 어려운 노동자이니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푼돈으로 시작을 했지요. 근데 나중에 당시 재경부가 조합원 명부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의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람쥐회가 그걸 이어가게 된 거예요. 비인가 협동조합으로요. 저도 처음에는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했는데 다람쥐회에서 협동조합을 처음 본 거예요. 노동운동도 협동조합운동처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출자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을 만들고 이익 나면 나누고 남으면 기부하는 완전 다른 형태의 사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주인이니까. 협동조합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 혼자 잘살면 뭐해? 외롭잖아!

**이정찬** 나도 안성 신협 임원생활을 12년 했어. 근데 의료생협 하면서 신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야. 지금 하는 신협은 너무 역할이 없는 거 같아.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만든 건데 지금은 돈 장사로 전락한 거 같은 말이야. 하지만 신협이 안성 의료생협처럼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한다면 지역이 얼마나 활기차지겠어? 금융과 생협이 통합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그런 안성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

**장남희** 저도 지금 생협에 몸담고 있지만 선생님과 비슷한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비인가 협동조합이지만 다람쥐회를 노동금고로 하자는 거예요. 협동조합체를 지원해 주고 협동조합체의 적금도 받으면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꿈이지요. 지역에 노동금고가 자리 잡아서 힘든 협동조합은 지원도 하고 잘 되는 건 서로 같이 나누고요. 그렇게 생활공동체 협의회 만드는 거예요.

**이정찬** 난 가능하다고 봐. 협동조합 중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소모임이 계속 만들어지거든. 안성 두레생협도 우리 생협에서 분가시킨 거야. 아름다운가게도 우리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나온 거고. 다 이곳에서 자원을 얻어 준비해서 나간 거야.

**장남희** 맞아요. 정말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 같아요. 먹거리, 교육, 환경, 의료 모든 부분에 협동조합이 생겨 어우러지는 것일요. 그리고 그런 건 조합원 요청으로만 들어져야 하고요.

**이정찬** 돈하고 사람하고 협동이 통합되면 교육, 일자리, 보육 하물며 밥상에 오르는 반찬 문제까지 생활 전반의 고민과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의료생협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사는 방식을 많이 배웠어. 나 혼자만 잘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나 혼자 잘 살면 뭐해? 외롭잖아.

**장남희** 맞아요.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니 안성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되네요. 저도 요즘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줄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위로받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wit**



# 도전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3인과 나는 5문 5답

취재 · 글 장영은 (홍보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남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내 일이 되었다거나, 내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 흔하지 않은 이야기일 테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누군가는 그 흔치 않은 이야기 속 몇 안 되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꼬일 대로 꼬여 어지럽고 복잡하기만 한, 도대체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만 같은 사회문제에 기발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들. 여기, 기존의 틀을 벗어 던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3인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만나보자!

## 주거권 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의 조희재

### Q1 골목바람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역복지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부동산으로, '사람 중심의 착한 중개'를 표방한다.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거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을 살피고 사람 살만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Q2 국내에는 이런 개념의 부동산이 최초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예전부터 수익 창출의 복지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왜 복지 사업을 하면 가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떻게 하면 후원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수익도 창출하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부동산이 현실적인 아이템으로 딱 와 닿았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전 직장에서 인연을 맺은 사회복지사 두 분과 뜻이 맞아,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2011년 4월에 문을 열었다.

### Q3 기존의 부동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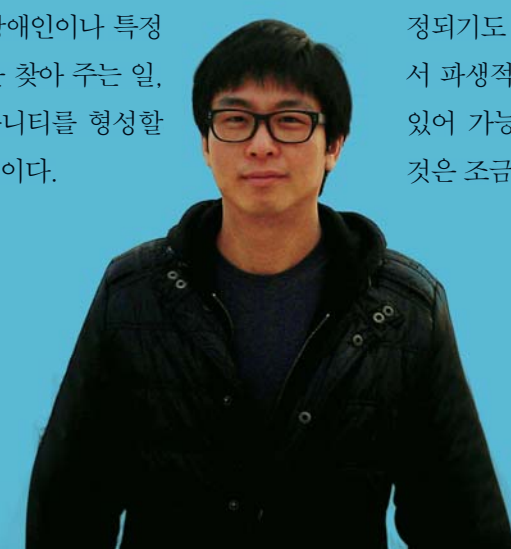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점은 여타 부동산과 똑같다. 단, 취약 계층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와 공인중개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그걸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시킨 셈! 그 밖에 주거복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발굴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의 3%를 세입자 명의로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일, 장애인이나 특정 소외계층에게 맞는 환경의 주거 공간을 찾아 주는 일, 계약 성사 이후에도 세입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일들이 그것이다.

### Q4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하려 한다면 뭘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은가?

사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일이라도 사무실을 낼 수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책상 몇 개 놓고 간판 달면 끝이다.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냐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은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고,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한번 빠끗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첫째도 경험, 둘째도 경험이다. 최소한 반년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쌓고,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약하면 여기저기 휩쓸려 갈 수도 있다. 왜 내가 이런 부동산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자기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Q5 골목바람과 같은 부동산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우리만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을 메뉴얼화해서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노하우를 전해 주고 싶은 의향도 있다. 근데 아이템 자체의 본질이 사라져 버릴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 내부에서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 나가서 파생적으로 하는 거면 그만큼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어 가능한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따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싶다.



### IT 개발자와 디자이너 중심의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코업'의 양석원

#### Q1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일을 하는 커뮤니티로, 해외에는 수백 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다. 2010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기업가에서부터 디자인 회사, 앱 개발자, 비영리 재단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칸막이 없이 일을 하고 있다.

#### Q2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웹기획자로 일을 하였고, 잠시 직장을 쉬면서 직업과 생활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됐다. 다시 웹기획자를 직업으로 시작하는 싫었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끼고 있었던 터에,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 역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 Q3 협력적 소비(공유경제) 관련한 일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설명해 달라.

사람들 간에 서로 물건을 바꾸고 빌리거나, 시간을 쪼개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과 결합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차를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공구나 안 쓰는 기계들을 빌려서 쓴다거나, 아이가 자라서 못 입히게 된 옷들을 다른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한다거나... 그야말로 공유의 경제 시대가 온 것! 이것들을 기본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것 역시 넘어서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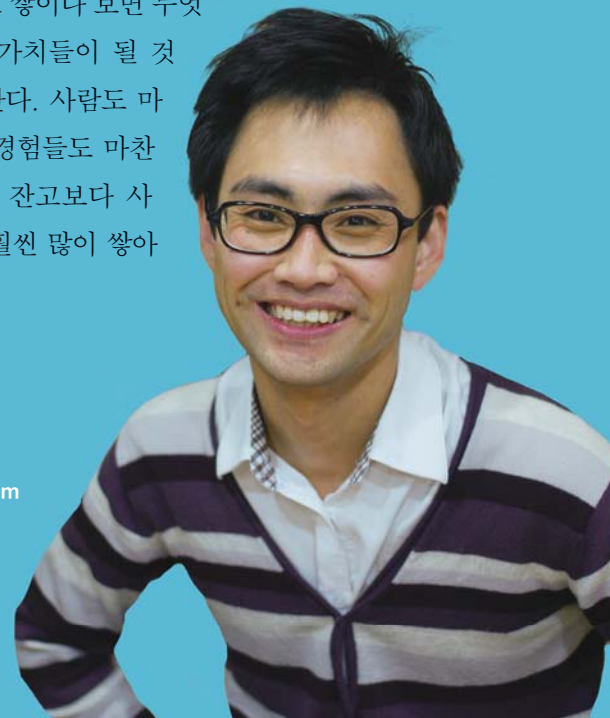
#### Q4 굉장한 멀티플레이어 같다. 자신의 어떤 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영향을 주었나?

일단 어떤 한 가지에 매력을 느끼면 거기에 폭 빠져 들기는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이것저것 많아졌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다.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교차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쌓이는 것 같고, 늘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오랫동안 기획하고 궁리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좀 더 앞서는 편이다. 일단 해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을 테고, 다르게 생각하면 빨리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는 것도 뒤에 큰 손해나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 Q5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일과 삶의 경계가 없어서 딱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꾸미는 것부터 즐겁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들도 마찬가지로. 통장 잔고보다 사회적 자본을 훨씬 많이 쌓아 놓은 셈이다.

www.co-up.com



### 독립적인 문화창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펀딩 플랫폼 '텀블벅'의 염재승

#### Q1 온라인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영화, 음악, 미술, 출판, 건축, 사진, 디자인, 미디어 아트, 게임, 요리 등 각종 창조적인 분야를 총망라하는 온라인 펀딩 플랫폼이다. 창작자들 스스로 기간과 목표액을 정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페이지를 만들어 올리고, 정한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이 모아지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한다. 작업은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지분이나 수익을 제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텀블벅의 정신에 부합하는 작업인지,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지가 중요하다. 텀블벅의 핵심은 펀딩이 아니고, 창작자들이 건강하게 창작을 해 나가는 것에 있다.

#### Q2 영화 전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했는가?

영화를 만들려면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산업 자본이나 지원금의 비중은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기회를 얻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99%는 포기를 한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비를 털어서 제작비를 마련하는 방법뿐이고, 그 중간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간을 찾으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 Q3 텀블벅이 여타 국내 펀딩 플랫폼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플랫폼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작자간 후원자간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커뮤니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다. 따라서 창작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말은 결국 스스로 뭘 원하

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손쉽고 보안이 잘 된 결제시스템이다. 사이트 오픈이 지연되기도 했을 만큼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고, 결국 국내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덕분에 텀블벅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기,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 Q4 텀블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 것은?

직접 창작을 했던 경험이다. 그로 인해 창작자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와 그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일명 촉, 감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촉이란 텀블벅의 정신에 부합할 만한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촉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창조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과 이해, 창작에 대한 촉이다.

#### Q5 염 대표가 생각하는 이 일의 매력, 가치는 무엇인가?

순간 지나가는 유행이나 잠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자본에 대한 해방이라고나 할까. 이전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거대자본이 다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거대자본이 할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있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알량하게 기회를 얻어 거대자본의 횡포에 망가지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파괴하는 것에서 이 일의 가치를 찾고 있다. 

www.tumblbug.com



# 프로보노, 진일보한 기부 방식으로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는 항상 자원의 부족함을 느낀다. 이때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주는 이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최근 이러한 자원봉사는 단순한 노력 봉사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전문적인 경영이나 운영에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나누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신의 전문 역량을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새롭고 창조적인 기부 방식인 프로보노(Probono)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 변호사들에서 시작된 프로보노 활동은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그 필요성 증대와 함께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플랫폼인 '서비스 그랜트(Service Grant)'를 운영하고 있는 사가 이쿠마 씨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서비스 그랜트 활동 노하우를 소개하는 『프로보노』란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를 만나 프로보노 활동의 의의와 성공 요건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 글 송소연 (홍보팀)

## 활동가들의 매력에 빠지다

“시민사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나게,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보였어요. 저도 회사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일본에서 '어스 데이 머니 Earth Day Money'와 서비스 그랜트라는 2개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가 이쿠마씨는 2005년 7년 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비영리단체 활동에 뛰어 들었다. 정부 사업의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그는 정부 일 속의 시민을 위한 일들이 정말 시민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2001년에는 직접 지역 화폐 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직장 일보다는 비영리 활동에 필요성과 매력을 느껴 활동가로 변신한 것이다.

“제가 직접 프로보노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으니 프로보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스 데이 머니 활동을 하면서 그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되었다. 사업이 더 잘 되길 바라며 건네는 소중한 조언이지만 어스 데이 머니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여기서 바로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 자원 봉사자, 즉 프로보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보노 활동을 원하는 이들과 비영리단체를 연결하고 실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문제 상황이지만, 여기엔 실제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길로는 해결되지 않는,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었다. 프로보노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 또한 넘치는 의욕을 그 목적과 투입 가능한 역량과 시간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했다. 이런 그의 고민은 이미 프로보노 활동의 노하우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탭룻 재단'을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아론 허스트 대표의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라는 조언은 사가 이쿠마 씨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웹사이트 제작을 중심으로 한 홍보 마케팅 프로보노 플랫폼인 서비스 그랜트를 조직하게 되었다.

## 성공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명 연출가

“프로보노 활동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항상 부딪히는 회사 사람들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죠. 또 자신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비스 그랜트는 비영리단체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보노의 플랫폼이다. 현재, 사가 이쿠마 씨를 포함한 6명의 직원들이 도쿄를 중심으로 1천여 명의 프로보노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사카 지부를 만들었다. 이들은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한 이들을 프로보노 워커라 부르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프로보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프로보노 활동과 진행 프로세스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각각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팀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단체의 웹사이트 제작이 아닌 단체를 어떻게 이해할지, 외부에서는 이들의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보노 코디네이팅을 하는 자신들의 역할이 '연출가'나 '각본가'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비영리단체와 프로보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각자의 요구를 조율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과정이 하나의 잘 짜여진 대본과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팀이 만들어 낸 제안서에 듬뿍 담겨진 애정을 느낄 수 있을 때와 프로젝트 종료 후 비영리단체의 회원 수가 증가하거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성공적인 프로보노 활동은 바로 지원하는 쪽과 받는 쪽의 기대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프로보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성공 요건으로 그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꼽았다. 프로보노 워커는 자신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지,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무료니까 한번 해보자란 접근 방식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 활동만으로 복잡다양한 조직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기 목표보다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서비스 그랜트의 다음 목표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프로보노 코디네이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길러주면서 참여자도 함께 성장하는, 진일보한 기부 방식인 프로보노의 활성화로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wit**



# 그녀의 손길이 생활을 빛나게 하네

취재·글 송소연 (홍보팀)



맛벌이로 바쁜 부부도, 육아로 지친 초보 엄마도,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아픈 청년들도 두 다리 뻗고 제일 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누가 뭐래도 집이 아닐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눈앞에 밝고 깨끗한, 잘 정돈되어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면 어느새 피로는 반쯤 사라질 것만 같다. 잘 정돈된 공간과 함께 다음 예약을 확인하는 기분 좋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공간을 섬세한 손길로 돌봐주는 우리 집안의 환경위생관리전문가 김말녀 ECO다.

## 고객의 집안을 책임지는 최강의 파트너

“ECO...?” 그녀가 내민 명함을 받아본 순간 이름 옆에 쓰인 경쾌한 발음의 단어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ECO는 Ecology Consultant의 약어로 예비 사회적기업 (주)인스케어코어(In's Care)가 자랑하는 고객 가정의 환경위생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고객의 공간인 '안(in)'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지닌 인스케어코어는 대표적인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주)이 웅진홈케어에서 인수한 환경위생관리 전문 업체다. 소파나 매트리스의 진드기 등 집진 제거, 주방 및 욕실의 세균 및 찌든때 제거, 해충 방제, 가족소파 등의 특수 클리닝 등 가정 환경 위생 관리 전반을 다루는 인스케어코어의 서비스는 친환경 세제 등 용품과 전문 위생 장비,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차별화 된다.

남녀 ECO 2인이 한 조로 활동하며 장비를 활용한 세탁기 등 가정용품의 분해 및 소재, 무거운 물품 등을 남성 ECO가, 집안일의 특성상 구석구석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여성 ECO가 분담한다. 46가구의 멤버십 회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말녀 ECO조는 4년차의 남성 ECO와 함께 최강의 파트

너십을 자랑한다. 과일 무른 것들을 골라내는 등 놓치기 쉬운 냉장고 관리부터 욕실 청소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컵받이 등을 실리콘으로 다시 마감하는 정성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작은 마음 씀씀이다. “아무래도 다른 고객의 소개가 이어질 때 더 큰 보람이 느껴지죠.”

## 재충전을 결심한 순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다가오다

김말녀 ECO가 인스케어코어에서 일한 지는 1년 2개월이 조금 넘었다. 강운정 인스케어코어 대표는 근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그녀를 망설임 없이 달인으로 추천했는데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상냥한 목소리와 밝은 표정, 섬세할 것 같은 긴 손가락에서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식당, 병원에서 요양보호와 간병 등 다양한 일을 해온 김말녀 ECO가 인스케어코어를 알게 된 곳은 병원이었다. 병원 간병 보조 일을 그만 두고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한 달 정도 휴식과 재충전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담당하던 병실 중 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항상 분주하게 통화하면서도 활기찬 모습은 조금은 지친 그녀에게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자 그분은 인스케어코어를 소개해주었다.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던 사무실 방문을 시작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식구들과 친구들을 부추겨 여기저기 놀러가자고 해놓고는 바로 일하게 된 거죠.”

그녀의 웃음엔 아쉬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 사회적기업을 통해 열정적인 미래를 꿈꾼다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일하는 보람도 느끼면서 그에 따른 보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또 일하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도 그녀가 꿈은 사회적기업의 장점이다.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족 같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거든요. 어려운 의뢰가 들어오면 스태프들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왜 못해, 뭘 걱정해, 다들 전문가잖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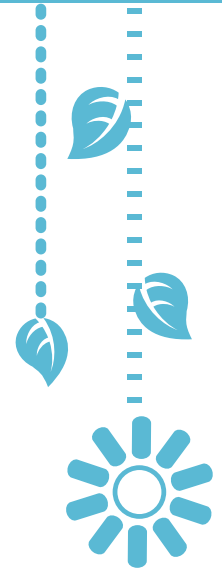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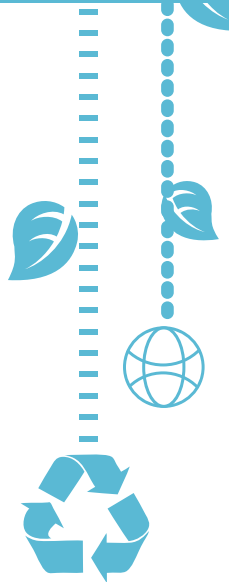
김말녀 ECO는 최근 근무 일자를 주중으로 조정했다. 주중은 홈케어 전문가로 일하고 주말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봉사 활동과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인터뷰 날 오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로 봉사를 하고 나온 그녀에게 일과 삶과 봉사는 이미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인 듯했다. 활동 보조를 하는 틈틈이 주변 위생에 신경 쓰며 저도 모르게 손을 움직여 청소를 하고 있다며 웃는 그녀다.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바쁜 중에도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열정적인 김말녀 ECO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면서 더욱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커졌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곳을 알았다면 교육도 받고 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복지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꿈과 업무와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희망을 하나씩 실현해나가려 한다.

“전 무모한 도전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이라서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되니 열정을 가지라고요.” **wf**



# 녹색 가정을 향한 첫 발걸음 지구를 살리는 에코웨딩 *Eco Wedding*

에코웨딩이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결혼식입니다.  
소중한 지구를 위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인 결혼식부터  
녹색 삶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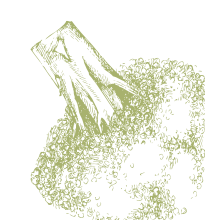


친환경 웨딩드레스 / 친환경 청첩장 /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 / 친환경 꽃장식 / 유기농 케이터링 / 공정신혼여행 등  
(주)대지를위한바스질 Tel. 070-8840-8826 www.ecodress.net 네이버 카페\_cafe.naver.com/ecowedding 페이스북\_ecoweddin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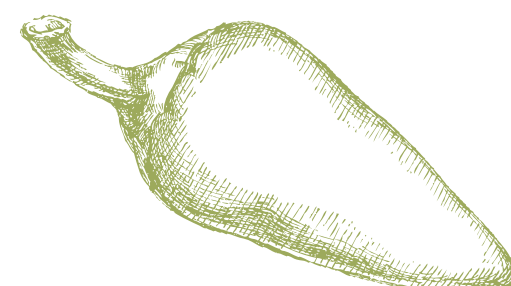


흙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 우리집 생활 꾸러미



“꾸러미는 흙의 고마움과  
햇살이 주는 소중함을 아는  
농민들과 함께합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보내지는 직거래 채소꾸러미로,  
흙살림 직영농장과 회원농가에서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꾸러미는 1회 3만 원, 매주 받을 경우 월 10만 원, 격주로 받으면 월 5만 원입니다.

(농)흙살림푸드주식회사 Tel. 043-212-0935 www.heuk.or.kr/shop 카페\_blog.naver.com/heukfood 트위터\_@heuksalim





## 셈크래프트와 함께 만드는 자연숙성 수제 천연비누

취재·글 장영은 (홍보팀)

황사, 먼지, 매연 등 각종 오염물질에 매일 노출되는 현대인들.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세제제 종류만도 정말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비누가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할 만큼 일상 생활 속 필수 아이템인 비누! 이왕이면 좋은 원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천연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100% 천연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져 피부에 자극이 적고 보습·항균 작용이 뛰어나 뿐 아니라, 자연 생분해되므로 지구환경에도 이로운 착한 비누 만들기에 지금부터 함께 도전해 보자!



**셈크래프트** 20여 년 전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고급 수제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 현재 12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02-900-1171, www.semcraft.com / 대표 채수선

### <준비할 것>

기본재료\_ 베이스 오일, 에센셜 오일, 정제수, 가성소다  
도구\_ 스테인리스 컵, 주걱, 온도계, 저울, 가열도구, 비누틀

### 천연비누 제작과정



1 베이스 오일에 가성소다를 조금씩 넣어가며 젓는다.



2 계량한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을 베이스 오일에 섞는다.



3 걸쭉하게 될 때까지 빠르게 저어 준다.



4 젤 상태가 되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누틀에 붓는다.



5 1~2개월 정도 숙성시킨다.



6 이를 동안 굳힌 후 틀에서 빼낸다.



7 끝칼로 비누 윗면과 가장자리를 정리한다.



8 비누틀을 붙잡고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공기를 빼낸다.

### ▶ 알아두면 좋은 비누 상식

하나! 천연비누의 자연 숙성단계



\* 숙성될수록 글리세린이 풍부해져 비누가 더욱 부드러워져요~!

### 둘! 천연비누 vs 일반비누

성분	천연비누	일반비누
오일	100% 식물성 오일: 보습작용과 이로운 물질 다량 함유	동물성 오일: 점도가 높아 끈끈함 광물성 오일: 미끈거리고 입자가 커서 모공이 막히기 쉽고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키기 쉬움
글리세린	글리세린 함유	글리세린 분리
계면활성제	미사용	인공 계면 활성제
방부제	미사용	인공방부제
경화제	미사용	인공경화제
색소	천연색소	인공색소
향료	에센셜 오일	합성 향료
환경오염	자연 생분해	환경오염의 원인

### ▶ 수제 천연비누, 이래서 좋다!

- 천연 보습제인 글리세린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보습력이 좋다.
- 천연재료를 만들어져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는다.
- 피부 타입(지성, 건성, 민감성 등)과 피부 트러블(여드름, 아토피 등)에 맞춰 천연재료와 기능성 첨가물을 조절한 맞춤형 비누를 만들 수 있다.
- 물에 녹으면 탄산가스과 물로 분해되어 없어지므로 환경친화적이다.





##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지음  
어크로스 퍼블 / 2012년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꿰뚫은 꿈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무역에 대해 단지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리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의 어디서나 재산 소유가 더 이상 확실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80년 전, 독일문호 괴테가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습시대』에서 귀족 아르노의 입을 통해 전한 부르주아의 꿈은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예언일까.

아르노는 “국가혁명이 일어나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자기 영지나 재산을 완전히 잃게 되는 비상시국에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끼리 서로 담보해주자”고 말한다. 여기서 ‘구성원’이란, 전 세계에 조직원을 둔 ‘탑의 모임’이란 비밀결사의 조직원 즉 부르주아와 개혁 귀족들을 말한다.

“우리 유서 깊은 ‘탑’으로부터 한 인간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계 각처로 전파되고 세계 각처로부터도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꿈을 품고 아르노는 미국으로, 다른 일원은 러시아로 떠난다.

18세기 ‘탑의 모임’이 꿰뚫은 꿈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1%를 위한 경제가 됐다. 1%의 사람들이 꿰뚫은 꿈속에서 99%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은 ‘아르노’들이 ‘우리’라 칭했던 ‘1%’를 위한 경제체제가 나머지 99%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묘사하고 분석한다.

이 책을 쓴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한겨레신문 기자로 99%의 삶을, 미국 MIT슬론스쿨 MBA과정과 뉴욕 월스트리트 모 투자자문사에서 ‘1%’의 삶을 지켜왔다. 그는 이렇게 전한다.

“이 경제에서 주인공은 1명뿐이다. 나머지 99명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1명을 열심히 응원하는 관객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은 풍요를 누리지만 관객들은 고단하다.”

어쩌면 그것은 ‘1명’의 주인공도 계속 서있기 고단한 무대다. 그의 자리를 원하는 누군가는 99명 중에서 끝없이 나타난다. 주인공만 빛나는 무대인가, 다 같이 즐기는 무대인가. 우리가 어떤 꿈을 만들고 실행하는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이런 꿈을 펴트린다.

“이성적 계산이 아닌 감성적 공감을 기반으로, 이기성이 아닌 상호성을 동기로, 경쟁적이 아닌 협력적 행태를 보이는 새로운 경제, 이것이 바로 시장만능주의를 대체할 ‘착한 경제의 코드’다.” **WT**

○ <CEO가 쓴다>는 사회적기업 CEO가 평소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책을 소개하는 코너로, 글을 써 주시는 사회적기업에는 추천도서 5권을 배송해 드립니다.



### 반빈곤서로돕기네트워크 초청, 토크쇼 개최

일본의 반빈곤서로돕기네트워크의 가와조에 마코토 대표와 그 상위조직인 반빈곤네트워크의 유야사 마코토 사무국장 및 실무자들이 9월 27~30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빈곤과 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불안정 노동 청년을 위한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준비하는 간담회, 청년들과의 토크쇼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재단과 희망청, 청년유니온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

(주)LG전자, LG전자 노동조합이 후원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2011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에 선발된 10개 기업은 10월 12~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열린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사업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녹색성장에 뜻을 함께 했다.

### 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청년에게 희망을’ 협약

재단은 10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으로 연합모금을 진행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모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 문제와 실업 청년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제4기 세상 스쿨 개강

행복나눔재단 주관, 재단 주최 ‘제4기 세상 사회적기업 스쿨’이 SK서린빌딩에서 개강식을 진행하고 교육의 시작을 열었다. 12월 8일까지 총 7번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백여 명이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다.



### 커커엔젤, 로터스희망미용센터에서 봉사활동 펼쳐

재단이 설립하고 로터스월드가 운영 중인 로터스희망미용센터에 (주)커커의 사내 봉사단인 커커엔젤이 방문하여 11월 13~16일까지 3박 4일 동안 교육생들에게 미용 교육과 실습 물품 지원 및 지역 내 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로터스희망미용센터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미용사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2011 희망TV SBS 열려**

11월 11~1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단을 비롯한 유니세프, 어린이재단, 굿피플 등 10개 NGO가 참가한 가운데 ‘2011 희망TV SBS’가 열렸다. 올해는 ‘Hope of Africa’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참가자들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모인 모금액은 총 330여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1 사회적기업가 창업 아카데미 종강**

재단 주관으로 9월과 10월 개강한 ‘2011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창업입문 과정’과 ‘2011 숭실대학교 창업아카데미’가 각각 11월 11일과 22일에 수료식을 갖고 종강했다. 강의, 조별실습, 워크숍, 현장방문 및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멘토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각 33명과 31명이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가 되었다.



**재단, 제1회 SBS희망내일나눔대상에서 NGO 참여상 수상**

12월 6일(화) 목동SBS 13층 홀에서 열린 제1회 SBS희망내일나눔대상에서 재단은 2009년부터 희망TV SBS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NGO 참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SBS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기업과 단체, 연예인들을 선정 하였다.



**2011 소셜벤처 프레젠테이션 파티 개최**

재단은 12월 21일 홍익대 홍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한 11개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0여명이 참가하여 소셜벤처의 의의에 공감하고 성과와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재단, 한국중부발전(주), 문화로놀이짱과 에코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12월 13일 재단은 한국중부발전(주)와 에코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센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유휴 부지에 한국중부발전(주)이 기증한 폐 컨테이너를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이 재활용 목재 창작 공간, 갤러리, 도서관 등으로 개조하여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제주 워크숍 개최**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1월 15~17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10개 선정기업이 모인 가운데 소셜미션 공유 및 비즈니스 모델 중간 점검을 위한 워크숍 ‘별별 공감’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해외 문화예술교육과 제주올레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문화예술교육 아이템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재단은 3월 28일 63빌딩 별관 3층 사이프러스홀에서 한화그룹 장일형 사장, 재단 이세중 상임이사, 고용노동부 이태희 국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컨설팅, 멘토링, 교육과 함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2012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참가**

서울시에서 우수기업과 구직자간의 채용면접 및 취업지원을 하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2012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가 4월 25일(수) 서울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렸다. 마포·은평·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열린 1회 박람회에서 재단은 틈새일자리 부문에 참여하여 재단의 지원사업과 소셜벤처 등 새로운 일자리를 흥미로운 테스트와 함께 소개했다. wt



○  
당신의 일은 어디에 있나요? 『내 일을 부탁해』 출판기념 릴레이 특강



당신의 일은 잡○리아에 있나요? 아니면 인크○트에 있나요?  
많은 이들이 내 '일'을 찾아 취업 정보사이트를 뒤적이며 스펙에 좌절하고 있을 때, '날 봐봐! 취업사이트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단과 청어람미디어가 함께 출간한 『내 일을 부탁해』의 멘토들이지요. 이로 유어마인드 대표(5/24), 박정규 희망여행가·장영복 신발끈 여행사 사장(5/31),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6/19), 김현성 사진작가(6/21) 등이 일일 멘토가 돼, 책에서 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출판기념 릴레이 강연회에서 털어놓았답니다. 강연회

에 참가한 이들은 1시간여의 강의도 모자라 강연이 끝나고도 멘토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경재 대표는 에코워딩에 대한 세미나와 전시를 함께 열어, 결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제 모든 강연회는 끝났지만 아쉬워 마세요.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생생한 현장 후기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  
편집실에서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살짝만 말해도 곧 눈치를 채고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쿵~' 하고 치면 '통~' 하고 받아친다니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벽과 대들보처럼 독자 분들과 유쾌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시는 걸음, 오시는 걸음, 『함께 일하는 사회』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겠어요?

○  
구독 신청 및 원고 보내주실 곳

121-81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함께 일하는 사회』 편집팀  
무료로 배포되는 『함께 일하는 사회』는 인터넷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환경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꿉니다

##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친환경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화그룹과 함께일하는재단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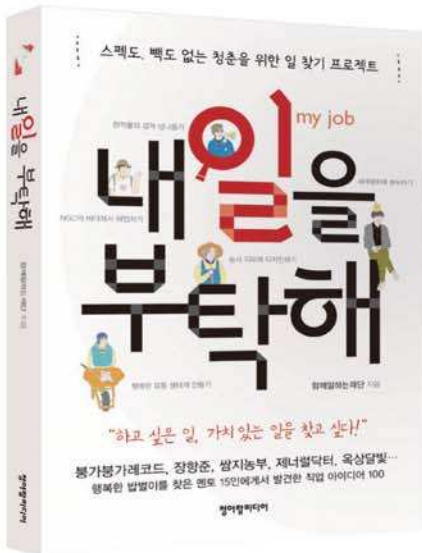
금산도토리일터 영농조합법인 / 나눔가게 / (주)아이티그린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 / 에코베타니아 / 오방놀이터 / (주)노나메기 / (주)몽생이  
주식회사 비비컴퍼니 / 희망을키우는일터 희망자전거 / E-zero waste 녹색미래 컨소시엄  
대지를 위한 바느질 / 미래ENT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주)서현플러스 / (주)백두리싸이클링 / (주)오르그닷 / 오가니제이션요리

녹색 꿈을 펼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응원합니다!

[www.dreamon-se.com](http://www.dreamon-se.com)

# 당신의 직업 공식을 깨부숴라!

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상상력을 높이는 단 한 권의 책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영화감독 장항준, 씬지농부 천호균,  
청춘밴드 옥상달빛, 제너럴닥터 김승범……  
자신만의 '행복한 밥벌이'를 찾아낸 멘토 15인,  
일과 청춘의 삶을 말한다!

스펙도 백도 없는 청춘을 위한 일 찾기 프로젝트

## 내 일을 부탁해

함께일하는재단 지음 | 292쪽 | 13,800원



고건혁 어쨌거나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장항준 자기가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

천호균 앞으로 뜨는 직업? 주저 없이 농사!

옥상달빛 공연비로 고구마도 받아와야~ 아~ 이게 진짜 일구나 알 거야.

제윤경 노후자금 10억? 필요 없다, 집 없어도 살 수 있다!

임경수 상상력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김가영 안정된 직장? 그건 환상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뻘하고 흔한 경쟁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의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각보다 무궁무진한 일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청년 스스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책